T·R·A·D·E F·O·C·U·S

2021년 **20호**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동향분석실 홍지상 연구위원(평가/전망)
김경훈 연구위원(평가/전망)
정혜선 수석연구원(세계경제)
강내영 수석연구원(환율)
강성은 연구원(동향)
도원빈 연구원(원자재)

통상지원센터 홍정완 수석연구원(통상)
이유진 수석연구원(통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21년 20호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발행인 구자열
편집인 박천일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2021년 6월 29일
디자인·인쇄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CONTENTS

- 요약 01
- Ⅰ.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및 평가 07
- Ⅱ. 2021년 하반기 무역 · 통상환경 전망 23
- Ⅲ. 2021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32
- Ⅳ.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전망 35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향분석실 홍지상 연구위원

02-6000-5638 js.hong@kita.or.kr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요 약 IIT

1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 2021년 1~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2,484억 달러, 수입은 20.9% 증가한 2,348억 달러, 무역수지는 137억 달러 흑자 기록

- 백신 보급 및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7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보임

  * 총수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 ('20.11) 3.9 (12) 12.4 ('21.1) 11.4 (2) 9.3 (3) 16.4 (4) 41.2 (5) 45.6

- 품목별로는 견조한 IT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

  * 품목별 수출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석유화학) 47.8 (자동차) 47.5 (가전) 36.2 (자동차부품) 35.1 (무선통신기기) 34.9 (바이오헬스) 31.2 (평판디스플레이) 24.9 (철강) 22.4 (이차전지) 21.0 (반도체) 19.2 (선박류) 18.2 (석유제품) 18.0 (섬유류) 10.7 (일반기계) 6.7 (컴퓨터) 3.6

-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EU 주요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1~5월 기준 26% 이상 증가했으며 아세안 수출도 13.3% 증가

  *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EU) 41.0 (미국) 31.1 (중국) 26.0 (중남미) 24.6 (아세안) 13.3 (일본) 6.6 (중동) -10.3

»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민간소비 및 기업 생산·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자본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

* 성질별 수입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자본재) 32.1 (소비재) 21.5 (중간재) 19.9 (1차 산품) 15.7

» 무역수지는 국제유가 상승 및 수입 확대 영향으로 2분기부터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

최근 수출입 실적 추이(2021년 1~5월)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수출액	5,422	5,125	480	447	537	512	508	2,484
(증가율)	(-10.4)	(-5.5)	(11.4)	(9.3)	(16.4)	(41.2)	(45.6)	(23.4)
수입액	5,033	4,676	443	422	496	508	478	2,348
(증가율)	(-6.0)	(-7.1)	(3.7)	(14.2)	(18.7)	(33.9)	(37.9)	(20.9)
수 지	389	449	37	25	41	4	30	137

2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 202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올해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 올해 6월 중순(6/16)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50%를 초과했으며, 유럽 주요국의 경우에도 접종률이 약 40% 이상 진행 중

» 상반기 수출은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 확대 및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서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선방

- 글로벌 교역 및 주요국 수입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도 15대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플러스로 반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경신

- 수출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가속화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차세대·신성장 품목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완성차 업계의 증산 요구분에 대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나 수출 감소 영향은 제한적, 해상운임 급등으로 화주 부담 및 물류 불확실성은 상존

2021년 상반기 우리 무역의 7大 특징

1	세계경제/교역	글로벌 교역은 코로나19 부진으로부터 빠르게 회복 중 – 2021년 1분기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
2	수출은 역대급 실적 달성	상반기 수출은 기저효과오 무관하게 역대급 수출실적을 기록 중 – 올해 1~5월 수출(2,484억 달러)은 기존 최대실적('18.1~5월, 2,456억 달러)을 상회
3	물량/단가 동시 개선	주요 품목의 수출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수출 회복세 견인 – 글로벌 경기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량 및 단가 회복세 가속화
4	3大 수출 기여품목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수출이 상반기 수출 호조세에 가장 크게 기여 – 특히 반도체는 모바일 등 견조한 비대면 IT수요에 힘입어 수출증가세를 주도
5	신성장 산업 수출 호조세	차세대·신성장 산업은 수출 호조세 지속 – 1~5월 8대 신산업 수출은 30.4% 증가(1~5월 총 수출증가율 23.4%를 상회)
6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발생 → 상반기 자동차 생산·수출 차질은 제한적 – 1~5월 월평균 軍생산량은 29.8만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32.9만대)에 접근
7	해상운임 급등	선복 부족 및 해상운임 급등으로 화주 부담 및 물류 불확실성 확대 – 최근 1년 동안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279% 상승('20.6.19 989 → '21.6.18 3,748)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3 2021년 하반기 무역·통상환경 전망

»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주요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백신 보급 · 접종 확대에 힘입어 완연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21년 세계경제는 약 6% 내외의 성장세, 상품 교역량은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속도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및 변이바이러스 재확산 리스크 등 하방 위험요인 상존

  * IMF('21.4)와 OECD('21.5)는 최근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5%p, 0.2%p 증가한 6.0%, 5.8%로 상향 조정

»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축소 및 美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위안화, 엔화, 유로화는 모두 달러 대비 약세 전망

» 국제유가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봉쇄조치 완화 가능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 전망

- 하반기 중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0~65달러 내외 예상

» 미국이 對중국 견제 및 자국내 공급망 강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전망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인권과 영토 이슈와 관련하여 대중국 압박을 지속하게 될 경우 갈등 심화 예상

2021년 하반기 수출입 환경 전망

	무역·통상환경 전망
세계경제	•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완화, 주요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백신 보급 · 접종 확대에 힘입어 완연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IMF, '20→'21^{p}→'22^{p}) : (세계) -3.3 → 6.0 → 4.4 (한국) -1.0 → 3.6 → 2.8
환율	•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50원~1,200원 수준에서 등락 예상 * 원/달러 환율(월평균) : ('21.1) 1,097 (2) 1,112 (3) 1,131 (4) 1,119 (5) 1,123
국제유가	• 미국, EU를 중심으로 원유 수요 회복, OPEC+ 공급 확대 및 멕시코만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원유 공급도 증가 예상
통상환경	• 미국의 對중국 견제 지속 및 자국내 공급망 강화 정책 확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공개시 논쟁 본격화 예상 • 연내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등 신규 FTA 발효 기대, RCEP도 빠르면 2022년 초 발효 예상

4 2021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3,046억 달러, 수입은 28.7% 증가한 3,060억 달러 전망

- 각국의 적극적인 백신 보급 정책 및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수출입은 큰 폭으로 성장 전망

  - 비대면 IT 기기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반도체 및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입은 상반기부터 이어지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민간소비 회복세에 따라 수출 대비 큰 폭으로 확대 전망

주력 품목 2021년 하반기 수출 증가율 전망(전년 동기 대비 %)

주력품목	석유제품(67.2) 석유화학(47.4)	선박류(17.2) 반도체(11.9) 철강(11.7) 자동차부품(11.3) 컴퓨터(10.6)	일반기계(9.7) 자동차(6.0) 섬유류(1.9)	무선통신기기(-1.1) 평판디스플레이(-4.1) 가전(-4.6)
증가율 구간	40% 이상	10% 이상~40% 미만	0% 이상~10% 미만	감소

»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6,017억 달러, 수입은 26.4% 증가한 5,912억 달러, 무역수지는 106억 달러 흑자 예상

- 수출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2018년(6,049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규모는 2년 만에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2021년 수출입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수 출	2,405	2,720	5,125	2,972	3,046	6,017
(증가율)	(-11.3)	(0.3)	(-5.5)	(23.6)	(12.0)	(17.4)
수 입	2,299	2,377	4,676	2,852	3,060	5,912
	(-9.0)	(-5.2)	(-7.1)	(24.1)	(28.7)	(26.4)
수 지	106	342	449	120	-14	106
무역규모	4,704	5,097	9,801	5,824	6,105	11,9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참고 2021년 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실적)	2021년 전망			하반기 품목별 업황 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반도체	992	554	586	1,140	• D램 단가는 연중 상승, 낸드는 3분기까지 상승 예상되며, 서버 수요 지속으로 수출 호조 예상
	(5.6)	(18.3)	(11.9)	(14.9)	
석유화학	356	261	270	531	• 유가 상승, 비대면 수요 호조 지속 등으로 시황 회복세가 이어지나 해상운송 차질 장기화로 제품 단가 상승 전망
	(-16.4)	(51.1)	(47.4)	(49.2)	
일반기계	479	254	264	517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정부 인프라투자 확대, 제조업 정상화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따른 일반기계 수요 증가 기대
	(-8.9)	(6.7)	(9.7)	(8.0)	
자동차	374	225	230	454	• SUV, 전기차를 중심으로 '21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12.2% 증가 예상되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13.1)	(42.6)	(6.0)	(21.4)	
석유제품	242	157	193	350	• 全제품군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항공유, 중유 등 수송용 연료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40.6)	(24.0)	(67.2)	(44.6)	
철강	266	159	153	311	•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제품 단가 상승세 지속 예상,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영향과 일부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등은 감소 변수
	(-14.5)	(23.2)	(11.7)	(17.3)	
선박류	197	118	117	235	• LNG선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예상되나, 최근 후판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건조 차질 가능성 존재
	(-2.0)	(20.5)	(17.2)	(18.8)	
자동차부품	186	117	118	234	• 글로벌 완성차 수요 증가로 부품 수출도 호조세가 예상되나 환경규제, 脫내연기관, 전동화 추세에 맞춘 기술개발 요구 확대
	(-17.3)	(44.5)	(11.3)	(25.7)	
평판디스플레이	180	88	102	190	• LTPO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LCD패널 단가 상승은 긍정적이나 일부 LCD 제품 생산 축소 등으로 소폭 감소세 예상
	(-12.2)	(20.4)	(-4.1)	(5.9)	
무선통신기기	132	79	73	152	• 국내업계는 8월 폴더블폰 출시와 더불어 합리적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중급 사양 5G 모델 투입 등 투트랙 전략 유지 예상
	(-6.4)	(36.4)	(-1.1)	(15.4)	
컴퓨터	134	68	75	143	•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센터용 서버 투자 재개, 일반 소비자용 제품 SSD 탑재 증가 등으로 기업·소비자 수요 동반 성장 예상
	(57.2)	(1.9)	(10.6)	(6.3)	
섬유류	112	61	60	121	• 미중 갈등에 따른 국내산 소재 수출 증가 반사이익, EU 및 선진국의 산업용·친환경 소재 수요 급증으로 화섬 수출 증가 예상
	(-13.3)	(14.7)	(1.9)	(8.0)	
가전	70	40	38	78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외공장 정상화 전까지 국내 출하량은 기존 대비 높은 수준 유지 예상
	(0.7)	(33.7)	(-4.6)	(11.6)	

Ⅰ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및 평가

Ⅰ.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및 평가

1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1) 총괄

» (수출) 2021년 1~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2,484억 달러

- 백신 보급 및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면서 최근 우리 수출은 7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보임

  * 총수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 ('20.11) 3.9 (12) 12.4 ('21.1) 11.4 (2) 9.3 (3) 16.4 (4) 41.2 (5) 45.6

-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등 지난해 부진했던 품목들도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품목별 수출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석유화학) 47.8 (자동차) 47.5 (가전) 36.2 (자동차부품) 35.1 (무선통신기기) 34.9 (바이오헬스) 31.2 (평판디스플레이) 24.9 (철강) 22.4 (이차전지) 21.0 (반도체) 19.2 (선박류) 18.2 (석유제품) 18.0 (섬유류) 10.7 (일반기계) 6.7 (컴퓨터) 3.6

- 중국, 미국, EU 주요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1~5월 기준 26% 이상 증가했으며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13.3% 증가

  *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EU) 41.0 (미국) 31.1 (중국) 26.0 (중남미) 24.6 (아세안) 13.3 (일본) 6.6 (중동) -10.3

» (수입) 2021년 1~5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2,348억 달러

-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민간소비 및 기업들의 생산·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차 산품,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등 모든 성질의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

  * 성질별 수입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자본재) 32.1 (소비재) 21.5 (중간재) 19.9 (1차 산품) 15.7

최근 수출입 실적 추이(2021년 1~5월)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수출액	5,422	5,125	480	447	537	512	508	2,484
(증가율)	(-10.4)	(-5.5)	(11.4)	(9.3)	(16.4)	(41.2)	(45.6)	(23.4)
수입액	5,033	4,676	443	422	496	508	478	2,348
(증가율)	(-6.0)	(-7.1)	(3.7)	(14.2)	(18.7)	(33.9)	(37.9)	(20.9)
수 지	389	449	37	25	41	4	30	1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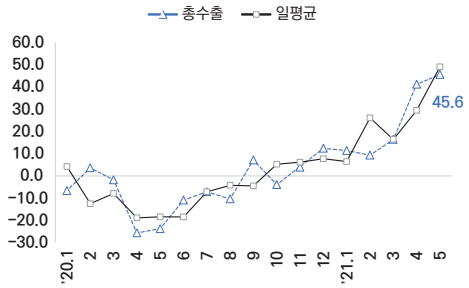
»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1~5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절대규모 측면에서도 선전하며 역대 최고 실적 기록

- 1~5월 수출액(2,484억 달러) 및 조업일수 효과가 배제된 일평균 수출액(22.4억 달러/1일)은 2018년 1~5월 실적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
  * 총수출액(1~5월) 역대 순위: (1위) '21년 $2,484억 (2위) '18년 $2,456억 (3위) '14년 $2,354억
  * 일평균 수출액(1~5월) 역대 순위 : (1위) '21년 $22.4억 (2위) '18년 $22.0억 (3위) '14년 $21.0억

-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수출단가는 올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물량은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월별 및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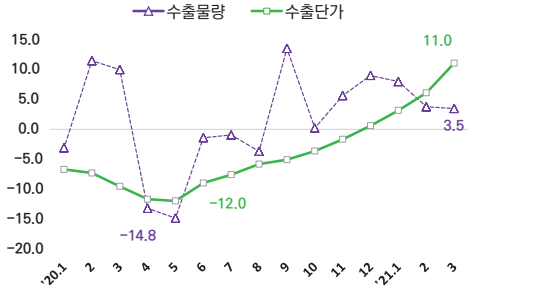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가율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한국은행

- 주요국의 전례 없는 정책 대응 및 백신 보급 확대로 인한 세계 경제 회복 모멘텀 강화가 수출 호조 요인으로 작용
  *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 (IMF, '21.4) 6.0 (OECD, '21.5) 5.8 (WB, '21.1) 4.0
  * 2021년 세계 무역증가율 전망 (%) : (IMF, '21.4) 8.4 (WTO, '21.3) 8.0 (WB, '21.1) 4.9
  * 세계 제조업 PMI 지수 추이(IHS Markit) : ('21.1) 53.6 (2) 53.9 (3) 55.0 (4) 55.9 (5) 56.0

» (품목별)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

- (IT)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로 반도체는 1~5월 중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소비심리 개선 및 언택트 수요 지속으로 가전(36.2%), 디스플레이(24.9%), 무선통신(34.9%), 컴퓨터(3.6%) 등 수출도 증가
  * D램 고정가(DDR4 8Gb, $) : ('20.3Q)3.13 (4Q)2.85 ('21.1Q)3.00 (2Q^{p}) 3.80
  * 낸드 고정가(MLC 128Gb, $) : ('20.3Q)4.68 (4Q)4.36 ('21.1Q)4.20 (2Q^{p}) 4.59

○ **(자동차)** SUV·친환경차 수출 단가 강세 및 주요 시장 소비심리 개선으로 미국·EU 등 수출이 선전하면서 자동차와 부품 수출은 1~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5%, 35.1% 증가

* 자동차 수출단가지수 증가율(한은, 전년동기비%) : ('20) -1.2 ('21.1) 1.1 (2) 2.7 (3) 2.9 (4) 3.6
* 자동차 수출물량지수 증가율(한은, 전년동기비%) : ('20) -11.9 ('21.1) 40.1 (2) 43.7 (3) 12.0 (4) 67.9
* 미국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비%) : ('20.12) 0.6 ('21.1) 8.2 (2) 5.7 (3) 21.2 (4) 42.7 (5) 26.4
* EU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비%) : ('20.12) 1.2 ('21.1) -4.2 (2) -0.9 (3) 12.4 (4) 22.4

○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국제유가 반등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전방산업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1~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 47.8% 증가하며 회복세

* 국제유가(두바이유, $/b) : ('20.4) 20.4 (12) 49.8 ('21.1) 54.8 (3) 64.4 (5) 66.3
* 석유제품 수출단가지수 증가율(한은, 전년동기비%) : ('20) -33.6 ('21.1) -14.6 (2) 7.9 (3) 62.8 (4) 141.4
* 석유화학 수출단가지수 증가율(한은, 전년동기비%) : ('20) -8.2 ('21.1) 32.9 (2) 37.4 (3) 52.6 (4) 75.2

○ **(바이오/배터리)** 바이오헬스 수출은 1~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5월 이차전지 수출은 美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정책 호재로 對美 수출을 중심으로 21.0% 증가

* 1~5월 對美 이차전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21.1) 189.0 (2) 195.0 (3) 295.0 (4) 287.5 (5) 227.7

15대 주력품목 수출 동향(2021년 1~5월)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비중 %)

품 목	2020년			2021년 1~5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반도체	992	(5.6)	(19.4)	460	(19.2)	(18.5)
석유화학	356	(-16.4)	(6.9)	214	(47.8)	(8.6)
일반기계	479	(-8.9)	(9.3)	213	(6.7)	(8.6)
자동차	374	(-13.1)	(7.3)	196	(47.5)	(7.9)
철강	266	(-14.5)	(5.2)	133	(22.4)	(5.3)
석유제품	242	(-40.6)	(4.7)	130	(18.0)	(5.2)
선박류	197	(-2.0)	(3.9)	99	(18.2)	(4.0)
자동차부품	186	(-17.3)	(3.6)	96	(35.1)	(3.9)
평판디스플레이	180	(-12.2)	(3.5)	75	(24.9)	(3.0)
무선통신기기	132	(-6.4)	(2.6)	65	(34.9)	(2.6)
바이오헬스	139	(55.9)	(2.7)	63	(31.2)	(2.6)
컴퓨터	134	(57.2)	(2.6)	56	(3.6)	(2.3)
섬유류	112	(-13.3)	(2.2)	50	(10.7)	(2.0)
이차전지	75	(1.3)	(1.5)	35	(21.0)	(1.4)
가전	70	(0.7)	(1.4)	33	(36.2)	(1.3)
총수출	5,125	(-5.5)	(100.0)	2,484	(23.4)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 중동,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 미국, 베트남, EU 등 주요 시장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중국)** 소비심리 회복 및 설비투자·산업생산 정상화로 對中 수출은 26.0% 증가했으며 반도체(13.0%), 석유제품(70.1%), 합성수지(37.9%) 등 선전
  *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비%) : ('20.12) 4.6 ('21.1~2) 33.8 (3) 34.2 (4) 17.7 (5) 12.4
  *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비%) : ('20.12) 7.3 ('21.1~2) 35.1 (3) 14.1 (4) 9.8 (3) 8.8
  * 중국 제조업 PMI 지수(IHS Markit) : ('21.1) 51.5 (2) 50.9 (3) 50.6 (4) 51.9 (5) 52.0

- **(미국)** 백신 보급 확대, 대규모 경기부양책, 바이든 친환경 정책 등 영향으로 자동차(36.4%), 자동차 부품(52.1%) 등 수출을 중심으로 31.1% 증가
  * 미국 제조업 PMI 지수(IHS Markit) : ('21.1) 59.2 (2) 58.6 (3) 59.1 (4) 60.5 (5) 62.1

- **(아세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선전으로 對베트남 수출은 20.5% 증가
  * 對아세안 국가별 수출 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베트남) 20.5 (싱가포르) 2.5 (말레이시아) -14.5 (태국) 33.5 (필리핀) 7.0 (인도네시아) 26.3

- **(EU)**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 지속, 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증가, 친환경차 등 고부가 차종 판매 확대 등으로 EU 수출은 41.0% 증가
  * 유로존 제조업 PMI 지수(IHS Markit) : ('21.1) 54.8 (2) 57.9 (3) 62.5 (4) 62.9 (5) 63.1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2021년 1~5월)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비중 %)

지 역		2020년			2021년 1~5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중국		1,326	(-2.7)	(25.9)	630	(26.0)	(25.4)
아세안		890	(-6.4)	(17.4)	405	(13.3)	(16.3)
	베트남	485	(0.7)	(9.5)	213	(20.5)	(8.6)
미국		741	(1.1)	(14.5)	378	(31.1)	(15.2)
EU		475	(0.6)	(9.3)	262	(41.0)	(10.5)
	독일	96	(10.3)	(1.9)	52	(38.8)	(2.1)
일본		251	(-11.7)	(4.9)	117	(6.6)	(4.7)
중남미		195	(-26.0)	(3.8)	96	(24.6)	(3.9)
중동		147	(-16.9)	(2.9)	58	(-10.3)	(2.3)
인도		119	(-20.9)	(2.3)	62	(30.9)	(2.5)
CIS		114	(-15.3)	(2.2)	51	(7.7)	(2.1)
	러시아	69	(-11.2)	(1.3)	37	(53.3)	(1.5)
전체		**5,125**	**(-5.5)**	**(100.0)**	**2,484**	**(23.4)**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수입 동향

» 민간소비 및 기업 생산·투자가 활발해지면서 2021년 1~5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2,348억 달러 기록

○ 자본재는 전년 동기 대비 32.1% 수입이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으며, 소비재(21.5%)와 중간재(19.9%) 모두 두 자릿수 수입 증가율을 기록

- 한편 올해 1~5월 원유,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 6대 에너지 수입액은 4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

* 2021년 1/4분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 : (GDP) 1.8 (민간소비) 1.0 (설비투자) 12.4
* 중간재 수입 상위품목 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천연가스) 3.8 (프로세서·컨트롤러) 19.7
* 자본재 수입 상위품목 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반도체제조장비) 82.0 (자동처리기계) 44.3
* 6대 에너지 수입액/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억 달러, %) :
[원유] 234(8.4) [천연가스] 89(3.8) [석유제품] 79(18.0) [석탄] 41(-5.1) [LPG] 18(30.1) [우라늄] 1(-37.1)

가공단계별 수입 동향(2021년 1~5월)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비중 %)

가공단계	2020년			2021년 1~5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중간재	2,347	(-6.1)	(50.2)	1,177	(19.9)	(50.1)
1차 산품	858	(-26.5)	(18.4)	448	(15.7)	(19.1)
자본재	750	(14.9)	(16.0)	384	(32.1)	(16.4)
소비재	694	(0.6)	(14.8)	330	(21.5)	(14.0)
전체	**4,676**	**(-7.1)**	**(100.0)**	**2,348**	**(2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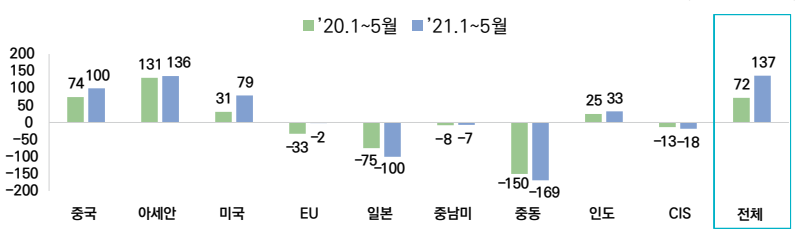
주 : 기타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무역수지

»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1~5월 전체 무역흑자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65억 달러 증가한 137억 달러 기록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특징 및 평가

(1) 총평

» 상반기 수출은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 확대 및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서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선방

- 글로벌 교역 및 주요국 수입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도 15대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플러스로 반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경신
- 수출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가속화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차세대·신성장 품목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완성차 업계의 증산 요구분에 대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나 상반기 중 수출 감소 영향은 제한적, 해상운임 급등으로 화주 부담 및 물류 불확실성은 상존

2021년 상반기 우리 무역의 7大 특징

①	글로벌 교역은 코로나19 부진으로부터 빠르게 회복 중 – 상반기 본격적인 백신 보급 및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에 따라 1분기 중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 * '21.1Q 주요국 수출증가율(%) : (중국) 48.8 (독일) 12.2 (네덜란드) 13.5 (홍콩) 31.1 (한국) 12.5
②	상반기 수출은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역대급 수출실적을 기록 중 – 2021년 1~5월 대세계 수출액은 총 2,484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 1~5월 실적을 상회 * 분기별 일평균 수출액(억 달러/1일) : ('20.2Q) 16.5 (3Q) 18.6 (4Q) 20.9 ('21.1Q) 22.2 (4~5월) 22.7
③	주요 품목의 수출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수출 회복세 견인 – 최근 세계경제 회복 흐름 속에서 국제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물량 및 단가의 회복세가 가속화된 것으로 평가 * 수출 물량지수 증가율(%) : ('19) -2.2 ('20) 1.1 ('21.1~4) 8.5 * 수출 단가지수 증가율(%) : ('19) -8.3 ('20) -6.7 ('21.1~4) 9.4
④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수출이 상반기 수출호조세에 가장 크게 기여 – 특히 반도체는 서버, 스마트폰, PC 등 견조한 비대면 IT수요를 바탕으로 2020년에 이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 * '21.1~5월 수출 기여율(%) : (반도체) 15.7 (석유화학) 14.7 (자동차) 13.4 (자동차부품) 5.3
⑤	차세대·신성장 산업 수출 호조세 지속 * 주요 신산업 수출증가율('21.1~5월, %) : (차세대반도체) 33.7 (바이오헬스) 31.2 (차세대디스플레이) 41.4 (에너지신산업) 10.0 (전기차) 45.5 (첨단신소재) 60.4 (로봇) 42.0
⑥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발생 → 상반기 자동차 생산·수출 차질은 제한적 –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①예상외로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 ②파운드리 기업의 생산 능력 제약 ③자연재해 등에 기인하나 상반기 자동차 생산·수출 차질은 제한적 * '21.1~5월 월평균 車생산량은 11.9% 증가한 29.8만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32.9만대)에 접근
⑦	선복 부족 및 해상운임 급등으로 화주 부담 및 물류 불확실성 확대 – 세계경기 회복세로 글로벌 물류 운송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으나 제한된 선복 공급으로 인해 해상운송 운임은 최근 1년 동안 약 2.8배 증가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년 6월 989(6/19)에서 '21년 6월 3,748(6/18)로 279% 상승

(2)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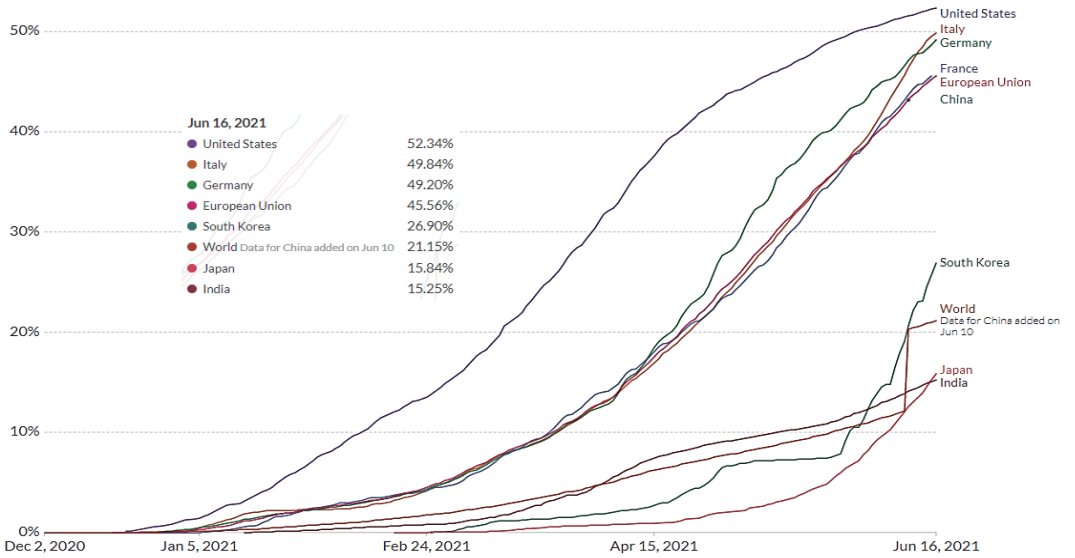
① 글로벌 교역은 코로나19 부진으로부터 빠르게 회복 중

» 202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올해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 올해 6월 중순(6/16)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50%를 초과했으며, 유럽 주요국의 경우에도 접종률이 약 40% 이상 진행되고 있음

2021년 상반기 주요국 백신 접종률 추이

(단위 : 총 인구대비 비중%)



자료 : ourworldindata.org

- 주요 전망기관들은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기의 조기 회복 가능성을 시사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전년 대비 %, %p)

IMF	전망시점	'20.6월	'20.10월	'21.1월	'21.4월
	전망치(증감)	5.4	5.2(-0.2)	5.5(+0.3)	6.0(+0.5)
OECD	전망시점	'20.9월	'20.12월	'21.3월	'21.5월
	전망치(증감)	5.0	4.2(-0.8)	5.6(+1.4)	5.8(+0.2)

자료 : IMF,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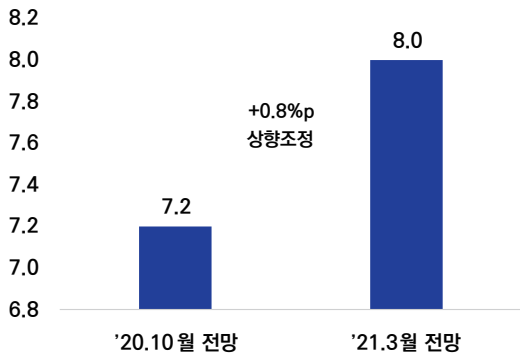
2021년 1분기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반등하는 등 세계경제 회복세와 더불어 상반기 글로벌 교역도 회복세 가시화

- WTO는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을 지난 2020년 10월 전망치(7.2%) 대비 0.8%p 증가한 8.0%로 상향 조정(2021년 3월)

- 2021년 1분기 중 중국의 1분기 수출이 전년 대비 48.8% 증가했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21년 WTO 세계 교역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자료 : WTO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 증가율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국가	'20	'21.1Q
1위	중국	3.7	**48.8**
2위	미국	-12.9	**2.0**
3위	독일	-7.3	**12.2**
4위	네덜란드	-4.8	**13.5**
5위	일본	-9.1	**8.8**
6위	홍콩	2.6	**31.1**
7위	한국	-5.5	**12.5**
8위	이탈리아	-7.7	**14.3**
9위	프랑스	-14.5	**8.3**
10위	벨기에	-6.1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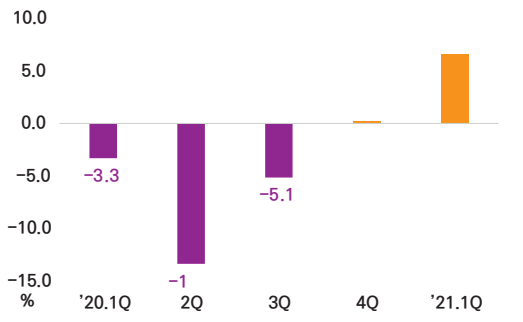
주 : 순위는 '21.1Q 각국의 수출금액 기준

자료 : WTO

- 2021년 1분기 주요국 수입시장도 물량 측면에서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

전 세계 수입물량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주 : 상품 수입 기준

자료 : CPB

주요 지역별 수입물량 증가율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국가	'20	'21.1Q
전세계	-5.4	**6.6**
선진국	-5.7	**4.6**
유로지역	-8.2	**1.5**
미국	-4.1	**9.2**
일본	-6.2	**3.8**
개발도상국	-4.7	**11.0**
중국	3.0	**19.3**
동유럽/CIS	-5.5	**6.2**
남미	-11.2	**8.5**
아프리카/중동	-2.9	**0.1**

주 : 상품 수입 기준

자료 : C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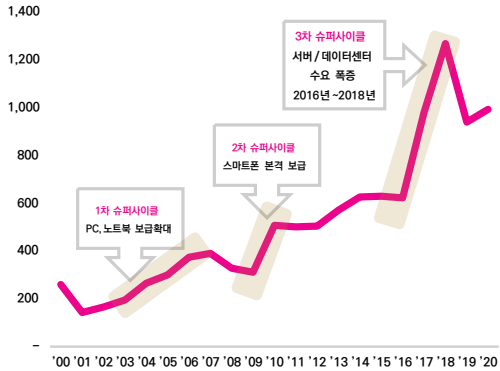
② 상반기 수출은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역대급 수출실적을 기록 중

» 2021년 상반기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넘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2018년 수출 실적을 상회

- 2021년 1~5월 대세계 수출액은 총 2,484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 1~5월 실적(2,456억 달러)을 상회

시황별 반도체 수출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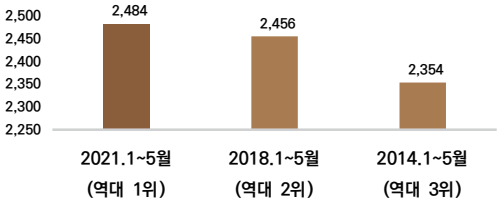


주 : MTI 831 기준

자료 : 박재근 및 언론 보도자료 재구성, 한국무역협회

역대 1~5월 수출액 비교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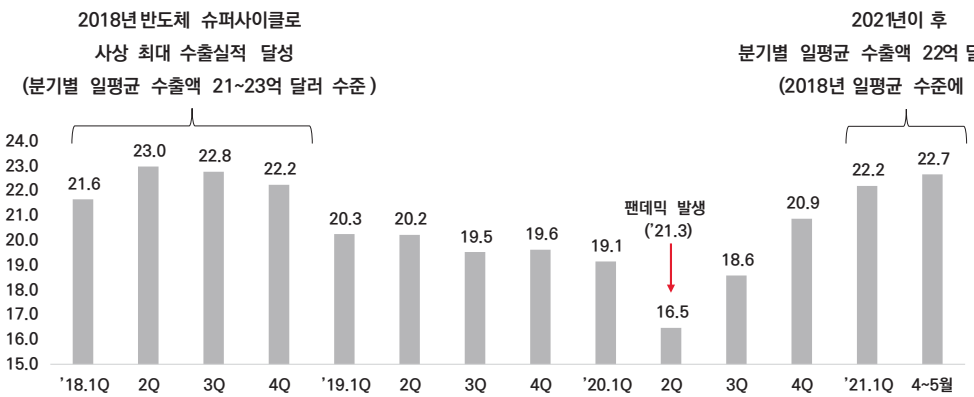
주 : 연도별 1~5월 대세계 누적 수출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분기별 일평균 수출액도 2020년 4분기 20억 달러 달성 이후 2021년 1~5월 중 22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빠르게 증가 추세

분기별 일평균 수출액 비교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③ 주요 품목의 수출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수출 회복세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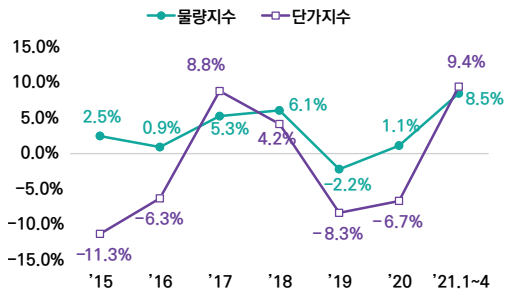
» 2018년 이후 3년 만에 수출 물량 및 단가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회복세를 가속

- 수출 단가는 2019년~2020년 중 연속 2년 전년 대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 1~4월 중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세로 전환

- 수출 물량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전년 대비 1.1%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2021년 1~4월 중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 등 크게 개선

수출 물량·단가지수 증가율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주 : '21.1~4월은 '20년 1~4월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요 품목별 수출 물량·단가지수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20년		2021년 1~4월	
	물량	단가	물량	단가
총지수	1.1	-6.7	8.5	9.4
석유제품	-9.5	-33.6	-24.3	30.6
석유화학	3.1	-8.2	-1.9	48.9
철강	-3.4	-11.8	1.0	15.4
반도체	20.2	-8.5	15.5	-0.6
일반기계	-8.3	-0.8	-4.7	-0.4
자동차	-11.9	-1.2	37.3	2.6

주 : '21.1~4월은 '20년 1~4월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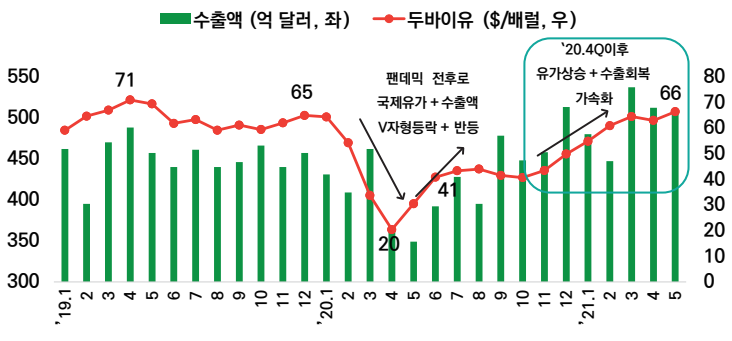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최근 세계경제 회복 흐름 속에서 국제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출 물량 및 단가의 회복세가 가속화된 것으로 평가

- 2020년 4월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던 국제유가는 2021년 6월 중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배럴당 66달러까지 급등

대세계 수출액 및 국제유가 추이 비교

(단위 : 억 달러, 달러/배럴)



자료 : 한국무역협회, 페트로넷

④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 부품 수출이 상반기 수출 호조세에 가장 크게 기여

» 15대 주요 품목 중 2021년 1~5월 전체 수출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반도체(15.7%), 석유화학(14.7%), 자동차(13.4%)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도체는 서버, 스마트폰, PC 등 견조한 비대면 IT수요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 중

- 국제유가 상승과 일회용품, 위생용품 등 전방산업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1~5월 중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

- 글로벌 자동차 수요 확대로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주요 수입시장 및 해외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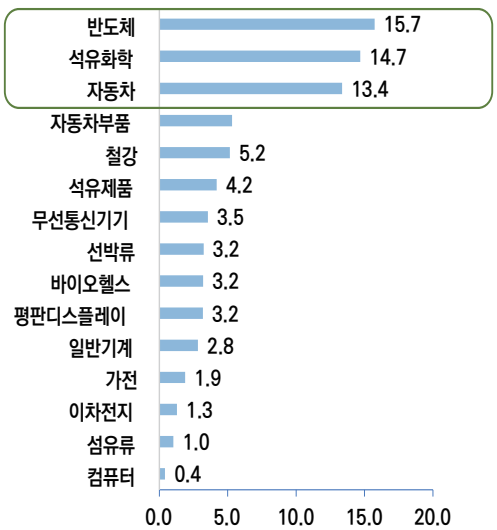
  * 지역별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미국) 52.1 (중국) 40.9 (멕시코) 18.8 (러시아) 36.2 (인도) 11.8 (슬로바키아) 30.0 (체코) 67.0

» 특히 석유화학 및 자동차 수출은 수출비중 대비 상대적으로 상반기 수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음

- 1~5월 중 석유화학 및 자동차 수출의 수출비중 대비 기여율 비율(배수)은 각각 1.70으로 15대 주요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

품목별 수출 기여율('21.1~5월)

(단위 : 기여율%)



주 : 15대 주요 품목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비중 · 기여율 비교('21.1~5월)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비중%, 기여율%)

품목명	수출 증가율	수출비중 (a)	기여율 (b)	배수 (b/a)
석유화학	**47.8**	**8.6**	**14.7**	**1.70**
자동차	**47.5**	**7.9**	**13.4**	**1.70**
가전	36.2	1.3	1.9	1.40
자동차부품	35.1	3.9	5.3	1.37
무선통신기기	34.9	2.6	3.5	1.36
바이오헬스	31.2	2.6	3.2	1.25
평판 디스플레이	24.9	3.0	3.2	1.05
철강	22.4	5.3	5.2	0.96
이차전지	21.0	1.4	1.3	0.91
반도체	19.2	18.5	15.7	0.85
선박류	18.2	4.0	3.2	0.81
석유제품	18.0	5.2	4.2	0.80
섬유류	10.7	2.0	1.0	0.51
일반기계	6.7	8.6	2.8	0.33
컴퓨터	3.6	2.3	0.4	0.18

주 : 품목 순서는 배수값 내림차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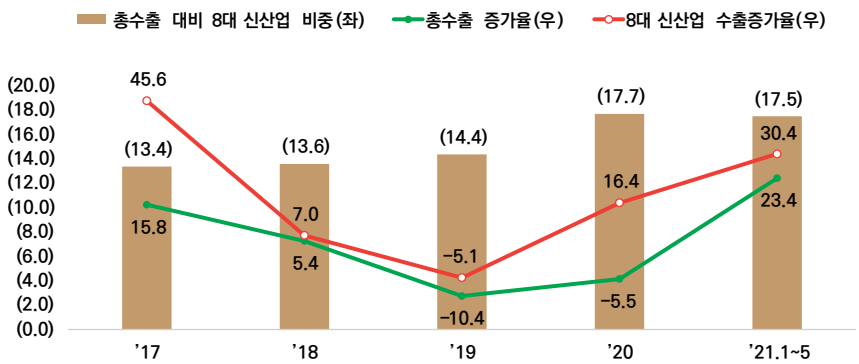
⑤ 차세대·신성장 산업 수출 호조세 지속

» 지난 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성장세가 돋보였던 8대 신산업 수출은 2021년 상반기에도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

- 1~5월 중 8대 신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최근 5년 간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상회

8대 신산업 수출증가율 및 수출비중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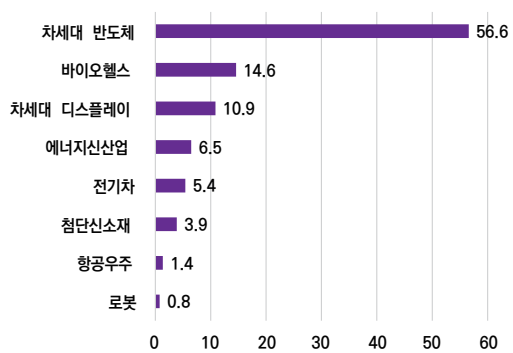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래 우리 수출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8대 신산업 수출은 2021년 1~5월 중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

- 차세대 반도체 수출이 8대 신산업 수출의 약 절반 이상('21.1~5월 비중 56.6%)을 차지하며, 항공우주 및 에너지신산업을 제외한 전 품목이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 시현

8대 신산업 수출비중 비교('21.1~5)

(단위 : 비중%)



주 : 8대 신산업 전체 수출액 대비 품목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8대 신산업 수출 동향('21.1~5)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8대 신성장 품목	2020년		2021년 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차세대반도체	489	(15.7)	246	(33.7)
바이오헬스	139	(55.9)	63	(31.2)
차세대 디스플레이	109	(6.4)	47	(41.4)
에너지신산업	64	(-5.7)	28	(10.0)
전기차	46	(39.9)	24	(45.5)
첨단신소재	28	(-0.1)	17	(60.4)
항공우주	24	(-16.2)	6	(-54.0)
로봇	6	(-1.9)	3	(42.0)
8대 합계	906	(16.4)	434	(30.4)

주 : '21.1~5월 수출금액 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

⑥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발생 → 상반기 자동차 생산·수출 차질은 제한적

»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①예상 외로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 ②파운드리 기업의 생산 능력 제약 ③자연재해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

- 코로나19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해 자동차 업계는 부품 발주량을 하향 조정했으나 예상외로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부품 재고가 빠르게 소진

  - 공급부족이 특히 심한 차량용 반도체는 마이크로컨트롤러(MCU)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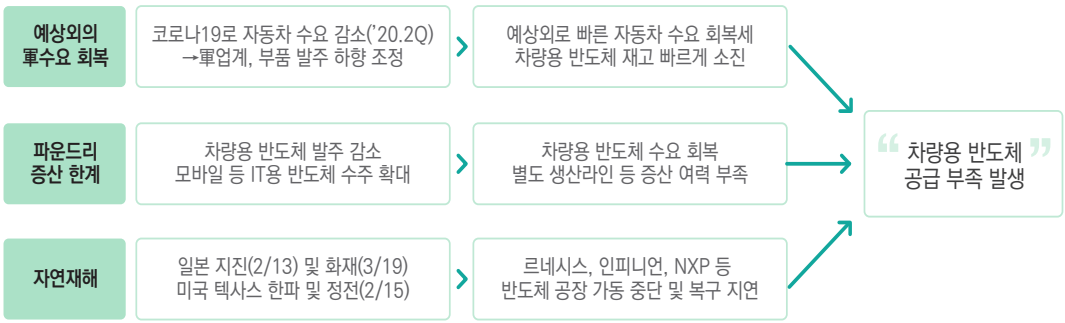
- 반도체 업계는 차량용 대신 스마트폰 등 IT제품 반도체 수주를 이미 확대한 상황이라, 단기간에 차량용 반도체를 증산할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

  - 차량용 반도체는 모바일이나 PC 반도체 대비 마진율이 낮고 전체적으로 출하량도 적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음

    * 르네사스(일본), NXP(네덜란드), 인피니온(독일) 등이 TSMC를 통해 세계 출하량의 약 70%를 생산 중이나 TSMC의 총 매출 대비 차량용 반도체 비중은 3%에 불과(IHS, '21.2)

- 일본 지진으로 인한 르네사스 공장 가동 중단('21.2월), 미국 텍사스 한파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으로 NXP, 인피니온 등 공장 가동 중단('21.2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발생 주요 원인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이슈보고서('21.3) 및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다만,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2021년 1~5월 중 국내 자동차 생산량 및 자동차 수출 감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국내 월평균 자동차 생산량은 2015년을 정점으로 매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코로나19 직전(2019년)에는 월 평균 약 33만대 수준을 기록

- 코로나19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자 완성차 기업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2020년 월평균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2% 하락한 29만대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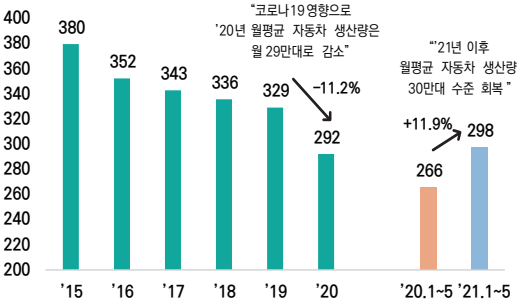
- 2020년 4분기부터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했으나, 2021년 1~5월 월평균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월 29.8만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 2021년 1~5월 자동차 수출도 매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며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출 감소 영향은 제한적

  - 완성차 기업들의 예상 발주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3~4월 월별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고 있음

월평균 자동차 생산량 추이

(단위 : 대, 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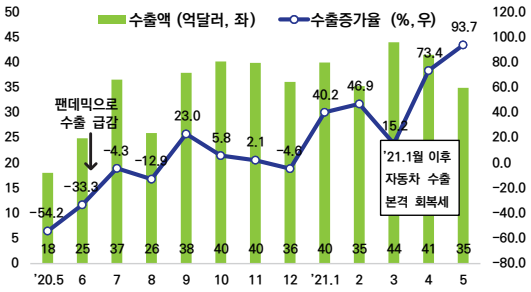


주 : 월평균은 기간별 생산량을 월수로 나눈 값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월별 자동차 수출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주 : MTI 74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⑦ 선복 부족 및 해상운임 급등으로 화주 부담 및 물류 불확실성 확대

» 세계경기 회복세로 글로벌 물류 운송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으나 제한된 선복 공급으로 인해 해상운송 운임은 최근 1년 동안 약 2.8배 증가

-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해상운임은 가파르게 상승 중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종합기준)는 2020년 6월 989(6/19)에서 2021년 6월 3,748(6/18)로 27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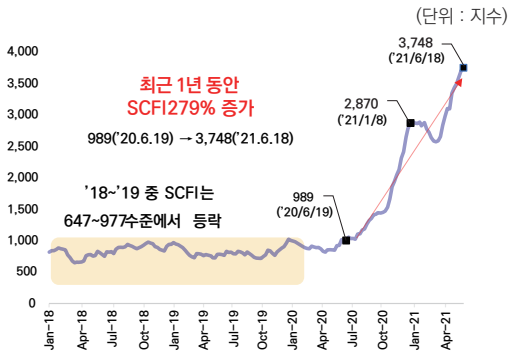
- 최근 운임 상승세는 ①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선복량의 한계 ②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인한 美서부 항만 컨테이너 작업 지연(컨테이너 부족) ③ 중국 신규 컨테이너 제조사의 가격 담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CIMC, 동방 등 중국 컨테이너 제작사들은 담합을 통해 공급량을 2018년 410만개에서 2020년 230만개로 대폭 축소했으며, 컨테이너 가격은 2020년 1월 1,850달러에서 2021년 1월 3,500달러로 약 2배 증가(국제신문 6/7 보도 요약)

  – 전세계 컨테이너 계선수[1]는 2020년 5월 말 550척(전체 선대 대비 11.6%)에 달했으나, 2020년 8월 초에 264척(비중 5.1%), 2021년 4월 말에는 60척(비중 0.8%)으로 급감(2021년 6월 중 대부분의 선박이 운항에 투입)

  – 美서부 LA항,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 장치기간(dwell time)이 5일 이상 소요되는 화물 비중은 코로나19 이전까지 5% 미만 수준이었으나 2020년 9월 이후 20% 이상으로 급등했으며 2021년에도 여전히 13% 이상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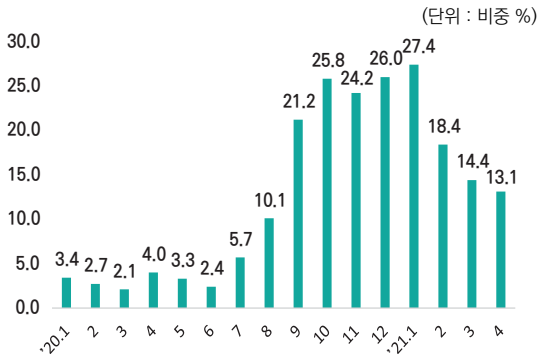
▎해상운임 추이(SCFI 종합)



주 : 2009년 10월 = 1000 기준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Shanghai Shipping Exchange

▎美서부항 5일 이상 장치화물 비중



주 : 총 컨테이너 화물 대비 비중

자료 : PMSA report('21.5월)

1 계선 : 운항을 중단하고 정박 중인 선박

II

2021년 하반기 무역·통상환경 전망

Ⅱ. 2021년 하반기 무역 · 통상환경 전망

1 세계경제

» 2021년 세계경제는 약 6% 내외로 성장 전망(IMF, OECD)

-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주요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백신 보급·접종 확대에 힘입어 완연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속도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 리스크 등 하방 위험요인 상존

»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4.7%에서 2021년 5.1%로 반등 예상(IMF)

- **(미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고용, 소비, 무역 등 경제 주요 부문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

- **(유로존)** 재확산 이후 백신 접종으로 회복세가 재개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일본)** 신규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사태(3차) 연장, 더딘 백신 접종 속도 등 방역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은 제한적일 전망

2021년 세계경제 전망(IMF, OECD)

(단위 : 전년 대비 %, %p)

연도	IMF(2021.4 전망)			OECD(2021.5 전망)		
	2020	2021ᵖ ('21.4월)	조정폭 ('21.1월 대비)	2020	2021ᵖ ('21.5월)	조정폭 ('21.3월 대비)
세 계	-3.3	6.0	+0.5	-3.5	5.8	+0.2
선진국	-4.7	5.1	+0.8	-	-	-
미국	-3.5	6.4	+1.3	-3.5	6.9	+0.4
유로	-6,6	4.4	+0.2	-6.7	4.3	+0.4
일본	-4.8	3.3	+0.2	-4.7	2.6	-0.1
신흥국	-2.2	6.7	+0.4	-	-	-
중국	2.3	8.4	+0.3	2.3	8.5	+0.7
인도	-8.0	12.5	+1.0	-7.7	9.9	-2.7
브라질	-4.1	3.7	+0.1	-4.1	3.7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1.4월), OECD(21.5월)

»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2.2%에서 2021년 6.7%로 반등할 전망이나 백신 보급 지연 및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재확산시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더딜 가능성 상존(IMF)

- **(중국)**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이 재개되면서 큰 폭의 반등세(8.4%)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인도)** 연초 빠른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2차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여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며 하반기 회복여부 불투명
- **(브라질)**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바이러스 재확산, 정치적 불안 지속으로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움

»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WTO)

-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미국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며 전반적인 글로벌 교역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
- 단,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서비스 무역은 지난해에 이어 부진을 이어갈 전망

WTO 세계 상품 교역량 전망(2019년~2022년)

(단위 : 전년 대비 %, %p)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0월 전망(a)	'21.3월 전망(b)	증감 (b-a)	
세계 상품교역량	0.2	-5.3	7.2	8.0	+0.8	4.0
수출						
북미	0.3	-8.5	10.7	7.7	-3.0	5.1
중남미	-2.2	-4.5	5.4	3.2	-2.2	2.7
유럽	0.6	-8.0	8.2	8.3	+1.0	3.9
아시아	0.8	0.3	5.7	8.4	+2.7	3.5
수입						
북미	-0.6	-6.1	6.7	11.4	+4.7	4.9
중남미	-2.6	-9.3	6.5	8.1	+1.6	3.7
유럽	0.3	-7.6	8.7	8.4	-0.3	3.7
아시아	-0.5	-1.3	6.2	5.7	-0.5	4.4

주 : 세계상품교역량 변동치는 volume 기준

자료 : WTO('21.3월 전망)

2 환율

» 美 달러는 최근 연준의 완화적 메시지에 의한 약세압력이 우세했으나, 대규모 재정지출과 조기 경제 정상화로 美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연준도 정책 기조를 선회하면서 강보합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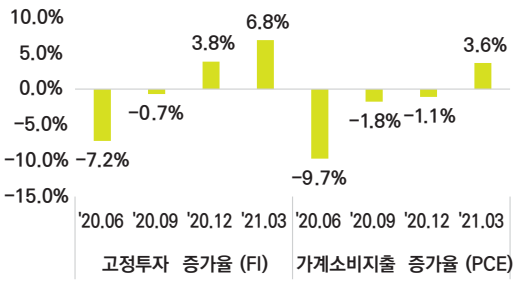
- 충분히 신중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경기 대비 완화적인 금융 여건 등이 3분기 달러화 지수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물가 지표 등이 예상을 웃도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 연말에는 달러화 반등이 예상됨

  * 2021년 美 주요 경기지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 :
  - 실업률 : ('20년) 8.1 ('21년^{P}) 5.8 ('22년^{P}) 4.2
  - 고정투자 : ('20년 12월) 3.8 ('21년 3월) 6.8
  - 가계소비지출 : ('20년 12월) -1.1 ('21년 3월) 3.6

美 경제성장 지표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CEIC

美 달러화 지수

(단위 : 2006년 1월 = 100 기준)

자료 : CEIC

» 위안화, 엔화, 유로화는 모두 달러 대비 약세 전망

- **(위안화)** 양호한 경기 펀더멘털과 10월 예정된 중국 국채의 WGBI 편입 이슈 등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인상(5%→7%) 등 위안화 추가 강세 저지 영향으로 달러 대비 약세 전망

- **(유로화)** 코로나 이후 경기 정상화 기대에 유럽의 심리 지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나, ECB 통화정책회의 관망세 등 고려 시 약세 전망

- **(엔화)** 일본 정부의 5월 경기판단 하향 및 긴급사태 연장(6/20일까지)으로 경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타 선진국 중앙은행 대비 느린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어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투자은행 환율 전망

전망 기관	엔화(엔/달러)			유로화(달러/유로)			위안화(위안/달러)		
	3개월	6개월	9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JP 모건	107	106	106	1.18	1.17	1.16	6.55	6.50	6.50
BNP 파리바	111	111	111	1.20	1.23	1.22	6.60	6.55	6.59
Morgan Stanley	109	110	110	1.22	1.21	1.19	6.45	6.48	6.53
HSBC	107	106	107	1.23	1.23	1.20	6.50	6.60	6.60
노무라	111	112	113	1.24	1.25	1.26	6.35	6.25	6.29
평 균	109	109	110	1.20	1.21	1.19	6.42	6.41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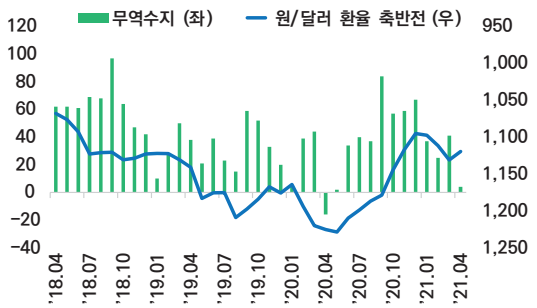
주 : 평균은 12개 주요투자은행 전망 평균치(단, 최고/최저 제외)
자료 : 국제금융센터(2021년 6월 7일 기준)

»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 및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 속에서 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국내주식 순투자는 12월을 기점으로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며 원/달러 환율의 반등 압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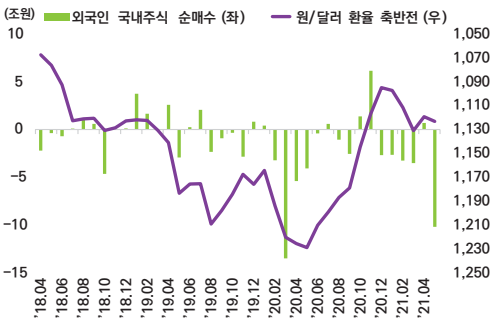
- 미국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힘입어 금리상승세가 여타국대비 가속화하면서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촉발

한국 무역수지 vs. 원/달러



주 : 원/달러 환율 그래프는 축반전하여 작성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 vs 원/달러



주 : 순매수는 ETF,ELW,ETN 등 종목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2021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결정의 주요 변수

상승 요인(원화 약세)	하락 요인(원화 강세)
▪ 외국인 자본 이탈 ▪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 미국 경제지표의 개선 ▪ 원자재 가격 상승, 무역수지 흑자 축소	▪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 ▪ 글로벌 경기 회복세 ▪ 미·중 무역협상의 합의

3 국제원자재 가격

» 하반기 중 원유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회복되면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0~65달러 내외 전망

- **(수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봉쇄조치 완화 가능성 및 경제활동 재개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세계 원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미국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나가며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 제조업 PMI(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이하면 수축을 의미)
      '21.3월 미국 제조업 PMI: 64.7('83년 12월 이후 최고치)
      '21.4월 유로존 제조업 PMI: 62.9('97년 6월 이후 최고치)

  - 세계 원유 소비 3위를 차지하는 인도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수요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

- **(공급)** OPEC+ 공급 확대 및 멕시코만 원유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하반기 중 원유 공급이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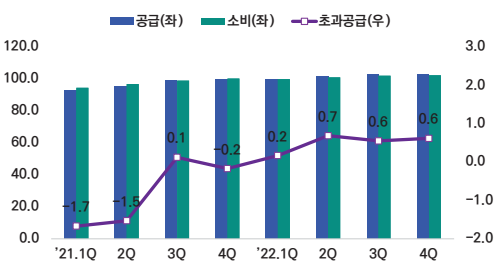
  - OPEC+가 4월 회의에서 합의한 생산목표량과 세계 원유 수요에 발맞춰 5월부터 공급이 확대 추세

  - 멕시코만 신규 프로젝트로 미국 원유 생산량이 2021~20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한 가동 중단 리스크 존재

    * 2021년에 4개, 2022년에 9개 프로젝트에 대한 원유 생산이 시작될 예정[2]

원유 세계수급 전망

(단위 : 백만 배럴/일)



자료 : EIA('21.6월)

주요 유종별 유가 전망

(단위 : 달러/배럴)

기 간		DUBAI	WTI	BRENT
2021년	연간	61.5	62.0	65.0
	2분기	62.0	62.0	65.0
	3분기	63.0	62.5	66.0
	4분기	59.0	62.2	65.2
2022년	연간	61.0	62.3	65.0

주 : 주요 전망치 중간값
자료 : Bloomberg('21.5월)

2 EIA('21.4월), Gulf of Mexico crude oil production will increase with new projects in 2021 and 2022

»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그린 뉴딜 전략으로 비철금속 수요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 등락 가능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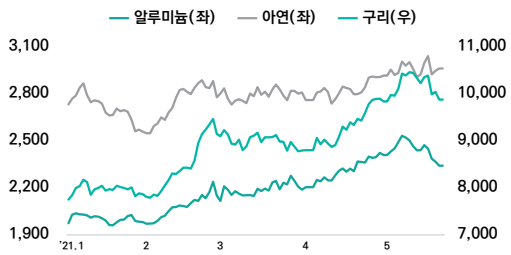
- 미국·EU가 2050년까지,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인프라 및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의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광산 파업 및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구리가격 불확실성 상존

  * 기관별 '21년 구리가격 전망($/톤) : (Intesa Sanpaolo, 5/17) 10,100 (Citigroup, 5/21) 9,625 (Commerzbank, 5/5) 8,850 (Fitch, 5/12) 7,250 (Westpac, 5/10) 6,191

비철금속 가격 추이

(단위 : 달러/톤)



주 : LME 현물시장 기준
자료 : Bloomberg

주요 비철금속 가격 전망

(단위 : 달러/톤)

구 분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구리	8,809	8,588	8,550
납	2,094	2,076	2,104
니켈	17,062	17,500	17,652
아연	2,803	2,778	2,861
알루미늄	2,200	2,200	2,100

주 : 주요 전망치 중간값
자료 : Bloomberg('21.5월)

» 세계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곡물 가격은 안정화될 전망

- 202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여건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송난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했으나, 올해 곡물 생산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 곡물 생산량 및 재고량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품목	2020/21	2021/22
생산량	옥수수	1,128	1,190
	소맥	776	789
	대두	363	386
기말 재고량	옥수수	284	292
	소맥	295	295
	대두	87	91

주 : 재고량은 기말재고량
자료 : 미 농무부(USDA, '21.5월)

주요 곡물 가격 전망

(단위 : 센트/부셸)

기 간		옥수수	소맥	대두
2021년	연간	564	680	1,428
	2분기	630	700	1,490
	3분기	600	680	1,465
	4분기	558	670	1,365
2022년	연간	505	660	1,238

주 : 주요 전망치 중간값
자료 : Bloomberg('21.5월)

4 통상환경

» **(美 통상정책의 변화)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중국 견제', '리더십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공조가 강화될 전망**

- **(對중국 견제)** 대내적으로는 의회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이 진행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쿼드(Quad) 및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

- **(미-유럽 동맹 강화)** 전통 우방인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항공기 보조금 분쟁, 232조 철강 관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양자간 통상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바이든 행정부는 6.8일 미국내 생산역량 강화, R&D 등 투자 확대 등의 공급망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방위, 공공보건, 기술·통신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검토를 지속할 계획

- **(무역협정)** 신규 무역협정 추진보다는 환경 및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USMCA 등 기존 무역협정의 이행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 **(EU 新통상전략) EU집행위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환경, 디지털, 역외보조금, 분쟁해결 등에 적용하여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탄소국경조정제도)** 구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입법안이 7월 중 공개될 경우 제도의 형태, 적용 범위, WTO 규범 합치성 등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역외보조금 규제 신설)** EU 역내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이 발표되어 향후 EU기업 인수,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은 신고의무가 부과되거나 혹은 EU집행위의 직권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망 실사)** EU 집행위는 역내 기업의 원자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임

» **(미중 갈등)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인권과 영토 이슈와 관련하여 대중국 압박을 지속하게 될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대만 이슈와 관련 미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對한국 수입규제) 5월말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건 감소한 6건으로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금년 연간 조사개시 건수도 작년(총 41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5월말 기준 터키 열연강판, EU 고용성 수지, 파키스탄 냉간압연코일, 캐나다 소형변압기, 터키 임플란트 등 총 5건의 반덤핑 신규조사와 모로코 금속 가로등 관련 세이프가드 1건의 신규조사가 개시됨

- 반면,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가 인도 재무부의 행정명령 미부과 등으로 올해 총 9건이 종료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의 신규조사도 종료됨에 따라 전체 규제건수는 총 221건(조사중 38건 포함)으로 소폭 감소함

주요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2021년 5월말 기준

(단위 : 건)

미국	인도	중국	터키	캐나다	인니	태국	브라질
44(4)	23(7)	16(-)	17(3)	14(1)	10(1)	8(2)	7(-)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 FTA) 금년 내 3건의 신규 FTA 발효가 기대되며, RCEP도 빠르면 내년 초 발효 예상

- 국회 비준동의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경우 금년 내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11개 회원국 중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4개국이 국내 비준을 완료했으며, 한국은 10월 경 비준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

  *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고 사무국에 비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후 발효

- 코로나19로 1년 4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이 6월 초 재개

2021년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발효(17건, 57개국)	서명/타결(4건)	협상중		
		신규·재개(7건)	개선(4건)	여건조성(2건)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AN(10), 인도, EU(27), 영국, 페루, 미국(개정),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5)	RCEP, 인도네시아CEPA, 이스라엘, 캄보디아(협정문 타결)	한중일, 메르코수르(4), 필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아세안, 인도, 칠레, 중국	PA가입협상, EAEU

III.

2021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Ⅲ. 2021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3,046억 달러, 수입은 28.7% 증가한 3,060억 달러 전망

○ 각국의 적극적인 백신 보급 정책 및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수출입은 큰 폭으로 성장 전망

- 비대면 IT 기기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및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입은 상반기부터 이어지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민간소비 회복세에 따라 수출 대비 큰 폭으로 확대 전망

»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6,017억 달러, 수입은 26.4% 증가한 5,912억 달러, 무역수지는 106억 달러 흑자 예상

하반기 전망의 전제

① 코로나19 및 변이바이러스의 대규모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
-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완화, 주요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백신 보급 · 접종 확대에 힘입어 완연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IMF, '20→'21^{p}→'22^{p}) : (세계) -3.3 → 6.0 → 4.4 (한국) -1.0 → 3.6 → 2.8

② 세계 교역은 글로벌 경기회복세보다 소폭 높은 회복세 예상
* 세계상품 무역량 증가율(%, WTO) : ('20) -5.3 → ('21^{p}) 8.0 → ('22^{p}) 4.0

③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달러당 1,150원~1,200원 수준에서 등락 전망
* 원/달러 환율(월평균) : ('21.1) 1,097 (2) 1,112 (3) 1,131 (4) 1,119 (5) 1,123

④ 국제유가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봉쇄조치 완화 가능성 및 경제활동 재개 본격화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 예상

2021년 수출입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수 출	2,405	2,720	5,125	2,972	3,046	6,017
(증가율)	(-11.3)	(0.3)	(-5.5)	(23.6)	(12.0)	(17.4)
수 입	2,299	2,377	4,676	2,852	3,060	5,912
(증가율)	(-9.0)	(-5.2)	(-7.1)	(24.1)	(28.7)	(26.4)
수 지	106	342	449	120	-14	106
무역규모	4,704	5,097	9,801	5,824	6,105	11,9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 년 품목별 수출 전망 (요약)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실적)	2021년 전망			하반기 품목별 업황 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반도체	992	554	586	1,140	• D램 단가는 연중 상승, 낸드는 3분기까지 상승 예상되며, 서버 수요 지속으로 수출 호조 예상
	(5.6)	(18.3)	(11.9)	(14.9)	
석유화학	356	261	270	531	• 유가 상승, 비대면 수요 호조 지속 등으로 시황 회복세가 이어지나 해상운송 차질 장기화로 제품 단가 상승 전망
	(-16.4)	(51.1)	(47.4)	(49.2)	
일반기계	479	254	264	517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정부 인프라투자 확대, 제조업 정상화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따른 일반기계 수요 증가 기대
	(-8.9)	(6.7)	(9.7)	(8.0)	
자동차	374	225	230	454	• SUV, 전기차를 중심으로 '21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12.2% 증가 예상되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13.1)	(42.6)	(6.0)	(21.4)	
석유제품	242	157	193	350	• 全제품군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항공유, 중유 등 수송용 연료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40.6)	(24.0)	(67.2)	(44.6)	
철강	266	159	153	311	•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제품 단가 상승세 지속 예상,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영향과 일부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등은 감소 변수
	(-14.5)	(23.2)	(11.7)	(17.3)	
선박류	197	118	117	235	• LNG선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예상되나, 최근 후판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건조 차질 가능성 존재
	(-2.0)	(20.5)	(17.2)	(18.8)	
자동차부품	186	117	118	234	• 글로벌 완성차 수요 증가로 부품 수출도 호조세가 예상되나 환경규제, 脫내연기관, 전동화 추세에 맞춘 기술개발 요구 확대
	(-17.3)	(44.5)	(11.3)	(25.7)	
평판디스플레이	180	88	102	190	• LTPO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LCD패널 단가 상승은 긍정적이나 일부 LCD 제품 생산 축소 등으로 소폭 감소세 예상
	(-12.2)	(20.4)	(-4.1)	(5.9)	
무선통신기기	132	79	73	152	• 국내업계는 8월 폴더블폰 출시와 더불어 합리적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중급 사양 5G 모델 투입 등 투트랙 전략 유지 예상
	(-6.4)	(36.4)	(-1.1)	(15.4)	
컴퓨터	134	68	75	143	•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센터용 서버 투자 재개, 일반 소비자용 제품 SSD 탑재 증가 등으로 기업·소비자 수요 동반 성장 예상
	(57.2)	(1.9)	(10.6)	(6.3)	
섬유류	112	61	60	121	• 미중 갈등에 따른 국내산 소재 수출 증가 반시이익, EU 및 선진국의 산업용·친환경 소재 수요 급증으로 화섬 수출 증가 예상
	(-13.3)	(14.7)	(1.9)	(8.0)	
가전	70	40	38	78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외공장 정상화 전까지 국내 출하량은 기존 대비 높은 수준 유지 예상
	(0.7)	(33.7)	(-4.6)	(11.6)	

Ⅳ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전망

Ⅳ.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전망

반 도 체

◆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5G 비중 확대, 언택트 수요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554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 서버 수요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586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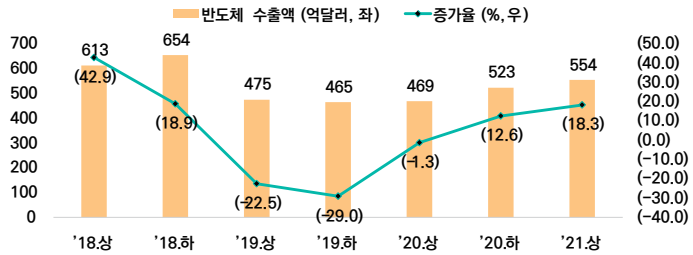
◆ 2021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1,140억 달러 내외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554억 달러 추정

반기별 반도체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83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단가) 메모리 가격은 전체 수요산업 시황 개선으로 상반기 중 상승세

* D램 고정가(DDR4 8Gb, $) : ('20.3Q)3.13 (4Q)2.85 ('21.1Q)3.00 (2Q^{p}) 3.80
* 낸드 고정가(MLC 128Gb, $) : ('20.3Q)4.68 (4Q)4.36 ('21.1Q)4.20 (2Q^{p}) 4.59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반도체	금 액	99,177	8,713	8,372	9,506	9,342	10,043	45,975
	(증가율)	(5.6)	(13.1)	(13.1)	(8.6)	(30.2)	(24.5)	(19.2)
메모리	금 액	63,929	5,318	5,221	6,120	5,927	6,569	29,154
	(증가율)	(1.5)	(24.9)	(12.6)	(8.2)	(18.8)	(13.6)	(15.1)
시스템·광개별	금 액	35,248	3,395	3,151	3,386	3,416	3,474	16,821
	(증가율)	(13.9)	(16.8)	(14.1)	(9.2)	(56.2)	(52.1)	(27.1)

주 : 반도체는 MTI 831, 메모리는 MTI 831110, 시스템·광개별은 MTI 831 중 메모리 외 전체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2021년 하반기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서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상반기 중 노트북과 스마트폰 수요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상존

2021년 하반기 반도체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수출여건	• 5G 확대, 계절적 성수기 등으로 연중 전년 대비 수출 성장 지속 전망 – (스마트폰) 5G 전환 가속화 및 2020년 구매 수요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견조한 수요 지속 * 5G 스마트폰 전년 대비 113% 성장, 보급률은 금년 37%까지 높아질 전망(TrendForce) – (서버) 인텔 고성능 CPU 출시와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 * 인텔 신규 CPU 'Ice Lake'(10nm 노드) 출시('21.4.7) – (PC)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등 증가로 노트북 등 비대면 경제 수요 지속 * '21년 글로벌 노트북 출하량 전망(TrendForce) : 2억 3,350만대 (전년 대비 16.0% ↑)
제품/기술 동향	• 4차 산업혁명 시대 연산, 제어, 지능, 증폭, 변환 기능을 갖는 고성능 저전력 차세대 반도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D램은 미세화, 낸드는 적층화 지속 개발중이며, 파운드리 분야는 TSMC와 삼성전자가 '23년 3nm 양산 목표로 첨단 공정개발 경쟁중
유가·원자재 환율영향	• 반도체 수출은 시장 수급상황이 매출액의 90% 이상을 결정해 환율 및 유가 변동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유가, 환율보다는 수급상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큼
업종별 이슈	•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최근 8인치 시장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시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단기간 내 파운드리 Capa 증가는 어려운 상황 * PMIC(전력반도체), DDI(디스플레이구동칩), CIS(이미지센서) 등의 수요 급증 – 반면, Applied Materials나 램리서치 등 주요 장비업체는 '13년 이전부터 8인치 장비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장비조달이 어려워 증설은 어려움 – 최근의 각종 정전 및 화재로 인해 공급부족은 더욱 심화 * ('21.3月) 르네사스 日 나카 팹 화재로 차량용 칩(MCU, PMIC) 라인 가동 중단 * ('21.2月) 텍사스 한파로 NXP(차량용반도체 2위),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 ('21.4月) TSMC 타이난 팹 정전 전력케이블 절단 사고로 일부 팹 정전 발생 • (美·中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최근 美·中은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 內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중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2021년 하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586억 달러 전망

(단가) 메모리 가격은 D램은 연중 상승, 낸드는 3분기까지 상승 전망

* D램 고정가(DDR4 8Gb, $) : ('21.1Q) 3.00 (2Q^{p}) 3.80 (3Q^{p}) 4.09 (4Q^{p}) 4.23
* 낸드 고정가(MLC 128Gb, $) : ('21.1Q) 4.20 (2Q^{p}) 4.59 (3Q^{p}) 4.70 (4Q^{p}) 4.60

(품목) 전년 대비 메모리 수출은 17.3% 증가,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2.9% 증가 전망

* 메모리는 가격 상승에 따라 두자릿 수의 높은 성장, 시스템반도체는 2020년 하반기 수출 호조(전년 대비 12.6%)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률은 약 3% 수준 전망

2021년 반도체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99,177	(5.6)	55,439	(18.3)	58,561	(11.9)	114,000	(14.9)
메모리	63,929	(1.5)	35,685	(14.8)	38,511	(17.3)	74,196	(16.1)
시스템·광개별	35,248	(13.9)	19,754	(25.3)	20,050	(2.9)	39,804	(12.9)

주 : 반도체는 MTI 831, 메모리는 MTI 831110, 시스템·광개별은 MTI 831 중 메모리 외 전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 상반기에 이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2021년 국가(지역)별 반도체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국가/지역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중 국	39,908	(6.9)	20,991	(10.6)	22,173	(5.9)	43,163	(8.2)
홍 콩	20,737	(-7.0)	12,008	(18.8)	12,684	(19.3)	24,692	(19.1)
베트남	11,501	(7.2)	6,143	(15.6)	6,489	(4.9)	12,632	(9.8)
미 국	7,457	(25.3)	3,845	(4.5)	4,062	(7.4)	7,907	(6.0)
대 만	6,373	(43.2)	4,652	(97.9)	4,914	(22.2)	9,566	(50.1)
유 럽	2,163	(15.2)	1,253	(23.8)	1,323	(14.9)	2,576	(19.1)
총 계	99,177	(5.6)	55,439	(18.3)	58,561	(11.9)	114,000	(14.9)

주 : MTI 83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석유화학

◆ 2021년 상반기 석유화학 수출은 글로벌 공급 차질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51.1% 증가한 261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석유화학 수출은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 전방산업 수요 회복 및 비대면 수요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4% 증가한 270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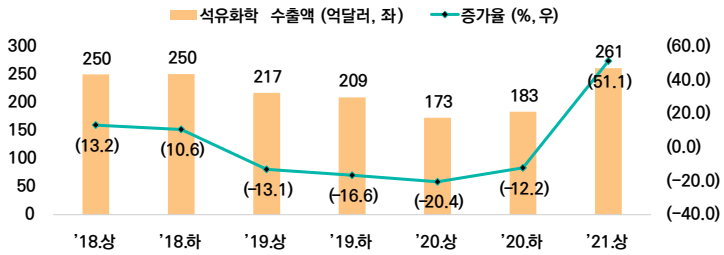
◆ 2021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대비 49.2% 증가한 531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1% 증가한 261억 달러 추정

반기별 석유화학제품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2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단가) 美 텍사스 한파 및 日지진에 따른 석화설비 가동 중단, 포장재, 가전, 의료용 합성고무 등 방역·비대면 관련 수요 호조로 상반기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51.1% 상승

* 수출단가(달러/톤, 전년동기비 %) : ['20.上] 919(-20.4) → ['21.上^{p}] 1,380(51.1)
* '21년 2월 이상 한파가 발생한 걸프만 지역은 미국 석유화학의 주요한 생산단지로 美 생산능력의 60% 차지, 5월 중 설비 가동 정상화 전망(ICIS)
* 日 지진 영향 가동 차질 설비(에틸렌 생산능력, 천톤/년) : Idemitsu(410), Mitsui(610), Eneos(540), Maruzen(525), Sumitomo(760)

○ **(물량)** 정기보수 일정에 따른 생산물량 손실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황 회복에 따른 설비 가동률 상승 및 국내 설비 신증설로 수출물량 증가

* 수출물량(천톤, 전년동기비 %) : ['20.上] 18,773(1.3) → ['21.上p] 18,895(0.7)
* 정기보수 손실물량(천톤, 전년동기비%) : ['20.上] 1,453 → ['21.上p] 2,371 (63.2)
* 에틸렌 생산설비 가동률(%) : ('20.上) 93.2 → ('20.下) 85.2 → ('21.上p) 97.1
* 생산설비 증설(천톤/년) : 여천NCC('21.1, 여수 에틸렌 335, 프로필렌 168 등), 한화토탈('21.5, 대산 에틸렌 150, 프로필렌 77, PP 400 등)

○ **(품목)** 비대면 수요 호조에 따른 합성수지 수출 호조, 락다운 조치 및 외출 감소로 합섬원료 수출 감소, 의료용 고무 수요 증가로 합성고무 수출 증가

* 합성수지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 ['20.上] 9,050(-11.8) → ['21.上p] 13,633(50.6)
* 합섬원료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 ['20.上] 792(-38.2) → ['21.上p] 665(-15.9)
* 합성고무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 ['20.上] 1,087(-19.5) → ['21.上p] 2,374(118.4)

○ **(지역)** 최대 수출국인 中 대규모 신증설에 따른 PX 등 자급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 차질과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

* 中 PX 한국산 수입 비중(%) : ('16) 47.3 ('18) 41.5 ('20) 36.7 ('21.上) 41.1

2021년 상반기 석유화학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석유화학	금 액	35,589	3,589	3,839	4,748	4,681	4,566	21,423
	(증가율)	(-16.4)	(8.8)	(23.6)	(48.5)	(83.3)	(94.9)	(47.8)
합성수지	금 액	19,202	1,910	2,008	2,460	2,436	2,394	11,207
	(증가율)	(-5.2)	(20.9)	(30.8)	(40.6)	(70.7)	(87.1)	(48.1)
합성고무	금 액	2,501	341	349	407	428	422	1,948
	(증가율)	(-7.2)	(54.3)	(71.6)	(92.4)	(168.6)	(217.8)	(109.8)
합성원료	금 액	1,395	95	126	191	84	127	623
	(증가율)	(-39.7)	(-44.3)	(-18.5)	(39.5)	(-24.9)	(35.7)	(-6.7)

주 : 석유화학은 MTI 21, 합성수지는 MTI 214, 합성고무는 MIT 215, 합성원료는 MTI 213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하반기 석유화학제품 수출여건은 상반기 대비 소폭 악화되나 호조세 유지

○ 글로벌 공급과잉, 글로벌 물류차질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능력 증대, 전방산업 수요 호조 지속 등으로 시황 호조세 지속 전망

2021년 하반기 석유화학제품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역
수출여건	• 수요 대비 과도한 생산능력 증가,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의 자급률 상승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 에틸렌 기준 글로벌 수요 증가율 3.4%('19~'22) 대비 동기간 공급 증가율은 5.8%에 달해 글로벌 공급 부담 가중 – 향후 예정된 증설 규모의 55%가 중국 내에서 진행될 전망 • 국내 정유사의 석유화학산업 본격 진출로 생산 및 수출 여력 확대 – NCC 現6개사 → '21년 9개사로 확대 (일부 업체 과점→완전 경쟁) – 향후 5년간 NCC 증설은 148만톤인 반면, 정유사는 305만톤 증설 예정 • 주요국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 시행 및 인프라 투자로 수요 증가 기대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 재정 지출 규모는 GDP대비 4.0% 수준이였으나 금번 코로나 팬데믹에는 13.6%로 대폭 향상 – 인프라 구축 등 건설 분야 투자 비중 높아 관련 제품 수요 증가 전망 • 컨테이너 부족 및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 석유화학업계는 울산·여수·대산에 입주, 전체의 99%를 항만을 통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지연 및 운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우려
제품/기술 동향	• 지속적인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 추진 – 주요 석유화학사는 '20년부터 '24년까지 15.7조원의 투자 진행중 • 기존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범용제품 위주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배터리, 수소, 화이트바이오 등 고부가 및 친환경 사업 구조 재편
유가·원자재 환율 영향	• 석유화학은 제조원가 중 원재료(유가) 비중이 약 75%로 유가 상승 시 원료비 부담 증대로 석유(납사)를 기반의 국내업계 원가 경쟁력 하락 * 가격 상승률(한국은행) : (유가) 10% ↑ ⇨ (기초원료) 7~8% ↑ ⇨ (최종제품) 4% ↑ •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하락시 채산성 감소 요인으로 작용 – 환율 하락분의 수출단가 전가가 어려워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다만, 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가격 인하로 환율하락시 원가절감 효과 발생
업종별 이슈 및 애로사항	• 원활한 투자 진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석유화학단지 인프라 개선 – 수입용 납사, 수출용 화학제품의 부두 적체가 심화되고 있어 원활한 원료 공급 및 제품 수출을 위한 부두 신증설 필요 * 여수 화학단지의 석유화학 부두 체선율은 '17년 38% → '20년 46%로 심화 추세 – 울산('72년)·여수('79년)·대산('91년) 산단은 '70년대부터 구축되어온 바, 유휴부지 부족으로 추가적인 설비·기반 확장에 애로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 2021년 하반기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4% 증가한 270억 달러 전망

- **(단가)** 유가 상승, 비대면 관련 수요 호조 지속 및 백신 보급으로 대면 관련 제품군 시황 회복, 해상운송 차질 장기화로 제품 단가 상승 전망

  * 브렌트유 가격 전망(EIA, 달러/배럴, 전년동기비%) : ['20] 41.7 (-34.8) → ['21^{p}] 62.3 (18.2)

- **(물량)** 글로벌 가동 차질 정상화에 따른 공급 증가에도 불구, 시황 호조세 지속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하반기 국내 신규설비 가동으로 수출물량 증가 예상

세계 에틸렌 수급 전망(2019년~2022년)

(단위 : 천 톤, 자급률 %, 연평균 증가율%)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19-'22)
총 생산능력(A)	182,559	194,062	205,684	216,314	5.8%
총 수요(B)	163,529	166,336	174,600	180,732	3.4%
자급률(A/B)	111.6%	116.7%	117.8%	119.7%	-

자료 : 석유화학협회, IHS

- **(품목)** 비대면 소비 고착화로 합성수지 수출 호조, 中 대규모 증설로 합섬원료 수출 감소, 자동차 등 전방산업 시황 호조로 합성고무 수출 증가 전망

- **(지역)**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로 건설,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전방산업 시황 개선되며 단가 상승 및 수요 증가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 증가 전망

2021년 석유화학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금액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화학	35,589	(-16.4)	26,074	(51.1)	27,014	(47.4)	53,086	(49.2)
합성수지	19,202	(-5.2)	13,634	(50.7)	14,084	(38.7)	27,717	(44.3)
합성고무	2,501	(-7.2)	2,374	(118.4)	2,479	(75.4)	4,853	(94.0)
합성원료	1,395	(-39.7)	666	(-16.1)	498	(-17.0)	1,164	(-16.6)

주 : 석유화학은 MTI 21, 합성수지는 MTI 214, 합성고무는 MIT 215, 합성원료는 MTI 213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반기계

◆2021년 상반기 일반기계 수출은 주요 국가별 경기 회복세로 기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254억 달러 추정

◆2021년 하반기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264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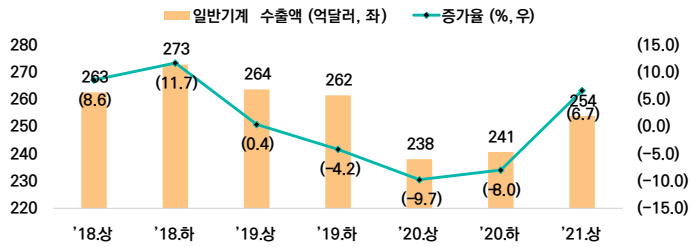
◆2021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517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254억 달러 추정

반기별 일반기계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71+72+75+79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계 수요 증가

- **(품목)** 금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

  - 중국의 수요 둔화에도 선진국의 건설투자 확대로 1~5월 미국 및 EU 지역으로의 건설광산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4%, 25.7% 증가

    * 주요 일반기계 품목 수출증가율(1~5월, 전년 동기 대비 %) : (원동기) 18.1 (펌프) 16.5 (건설광산기계) 27.2 (기계요소) 16.1 (금속공작기계) 1.4 (금형) -26.9

2021년 상반기 일반기계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일반기계	금 액 (증가율)	47,885 (-8.9)	4,038 (-4.9)	3,927 (-5.7)	4,715 (6.1)	4,307 (17.1)	4,279 (25.8)	21,266 (6.7)

주 : MTI 71+72+75+79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정부 인프라투자 확대, 제조업 정상화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따른 일반기계 수요 증가 기대

2021년 하반기 일반기계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수출여건	• (건설기계) 중국의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미국·유럽 등 선진국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과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출 증가 전망 * 미국 주택 경기 회복에 따른 소형장비 중심의 건설장비 수요 증가 • (공작기계) 주요국 정부 부양책 추진과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회복으로 '20년의 부진했던 수출이 점차 회복세로 전환. 국내기업 수주 역시 증가 * 전세계 제조업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日 공작기계 해외 신규 수주가 5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02.3% 성장하는 등 세계 설비투자 증가 추세 • (농기계) 북미 중심 소규모 농업, 가드닝을 위한 농기계 수요 증가로 50마력 이하 소형 트랙터 중심의 수출 증가세 유지 * 농기계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수요 증가로 국내 농기계 생산기업의 수출실적도 크게 성장 • (금형) 20년 하반기 해외 수주 활동 축소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출이 급감했으며, 수요산업의 설비 투자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수출이 크게 증가 * 국별 금형 수출 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수출규모순) : (일본) -19.0 (멕시코) 7.1 (베트남) -7.1 (인도네시아) 534.4 (미국) -63.3 (중국) -46.4
유가·원자재 환율영향	• 철강 수급애로 - 조선, 자동차 등 전산업에 걸친 수요 증가로 철강 수급애로 발생 - 열연, 후판, 주물소재 등 철강 공급 지연 및 기계업계 생산차질, 가격인상 등의 애로 발생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2021년 하반기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264억 달러 전망

- **(중국)** 제조업 경기 및 공장가동률 정상화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공작기계, 기계요소,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기계 수요는 중대형급 수요 둔화에도 소형급 수요 증가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4월 중국內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 20.2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했으나 원자재가 상승, 인프라 투자 증가, 인건비 대체 소형장비 수요 증가 등을 감안, 5월 이후 중국시장 수요 회복 전망(5/13, 대신증권)

-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추진과 자동차·반도체 등 전방산업 설비투자 확대, 건설경기 활황 등 영향으로 수출 회복 기대
  * 제조업 PMI : [IHS]('21.3월) 59.1 → ('21.4월) 60.6, [SM]('21.3월) 64.7 → ('21.4월) 60.7

- **(인도)** 건설장비 및 기계요소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전국에 걸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현지 프로젝트 및 설비투자가 지연되면서 수출 회복 불확실성 상존
  * 對인도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원동기 및 펌프) 2.0 (건설광산기계) 73.7 (기계요소) 50.4 (금형) -67.8

- **(EU)** 유럽 내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재개 및 인프라 투자 증가 영향으로 건설기계, 공작기계, 원동기 및 펌프 등 수출 호조 예상
  * 對EU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21.1~5, 전년 동기 대비 %) : (원동기 및 펌프) 37.9 (건설광산기계) 25.7 (금속공작기계) 29.5 (기계요소) 33.8 (금형) -17.1

2021년 일반기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일반기계	47,885	(-8.9)	25,400	(6.7)	26,400	(9.7)	51,700	(8.0)

주 : MTI 71+72+75+79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동차

◆ 2021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한 225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수출은 SUV, 전기동력차 수출 호조세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230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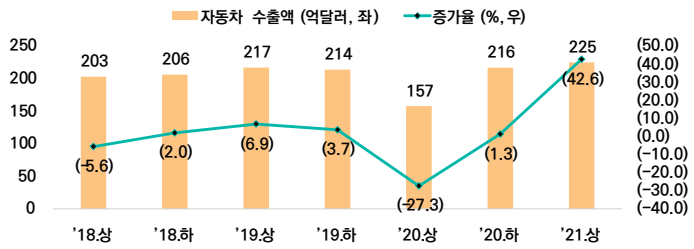
◆ 2021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454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한 225억 달러 추정

반기별 자동차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74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월 월평균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월 29.8만대 기록

- 2020년 4분기부터 주요국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1년 1~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

  * '21.1~5월 대당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7.4% 상승한 22,427 달러

2021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자동차	금 액	37,399	3,996	3,525	4,397	4,147	3,493	19,558
	(증가율)	(-13.1)	(40.2)	(46.9)	(15.2)	(73.4)	(93.7)	(47.5)

주 : MTI 74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및 미국, EU 등의 경기 부양책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올 하반기 세계 자동차 수요는 점진적인 회복세 예상

-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수출 확대에 애로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수출여건	• '21년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대형상용 제외)는 '20년 대비 12.2% 증가할 전망이며, '17년~'18년 연간 약 9,500만대였던 자동차 수요는 '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7,800만대로 낮아졌으나, '21년부터 3년에 걸쳐 회복할 것으로 전망(출처: LMC오토모티브) * 세계 자동차시장 전망('21.4, LMC오토모티브, 천대) : ('17) 95,170 ('18) 94,438 ('19) 90,307 ('20) 77,827 ('21^{e}) 87,286 ('22^{p}) 92,076 ('23^{p}) 96,142
제품/기술 동향	•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EU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동력차 판매 필요성 확대 (미국) 바이든 정부 집권 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했으며, 제작사별 자동차 평균연비·CO_2규제 기준 강화(안) 마련 중 (EU) 그 간 경유승용차는 연비·CO_2 규제 대응을 위한 주력 차종이었으나, 유해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따른 차량 가격경쟁력 약화로 매년 판매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제작사는 전기동력차 등 대체 투입 필요 * EU 경유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비중(%) : ('16) 49.2 ('17) 44.4 ('18) 36.7 ('19) 31.6 ('20) 28.0
유가·원자재 영향	• 최근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동, 남미 등 신흥국들의 자동차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 매년 세단 수출대수 비중은 감소한 반면, SUV 수출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유가가 상승할 경우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어 SUV 수출비중 증가세 둔화 예상
업종별 이슈 및 애로사항	• 글로벌 업체들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 예측 미스와 IT기기 등 타 산업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발생 •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장기화시 수출 확대 애로 지속 예상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230억 달러 전망

- **(물량)**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 회복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4.3% 증가한 111만대 수출 예상

  * 2021년 하반기 수출대수 전망(한국자동차산업협회, 만 대, 전년 동기 대비 %) :
  ['20.下] 106만 대 (-8.1) → ['21.下p] 111만대 (+4.3)

- **(품목)** 미국, EU 등의 환경 규제 강화로 전기동력차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 상승으로 SUV 비중 증가세는 다소 둔화 예상

  - 각국의 연비·CO_2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전기동력차 판매 확대 예상

  - SUV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올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단가)** 자동차 평균단가는 하반기에도 상승세 지속 전망

  * SUV와 전기동력차 평균단가는 8~12% 상승 예상(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지역)** 하반기에는 선진국 및 신흥국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한국 자동차수출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21.1~5, 38.5%)와 EU('21.1~5, 17.8%)의 수요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지속 예상

  -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세로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수요 증가 전망

2021년 자동차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	37,399	(-13.1)	22,460	(42.6)	22,955	(6.0)	45,415	(21.4)

주 : MTI 74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석유제품

◆ 2021년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157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2% 증가한 193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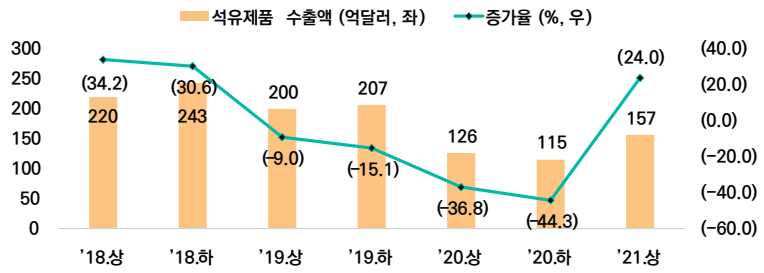
◆ 2021년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한 350억 달러 내외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157억 달러 추정

반기별 석유제품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133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美, EU 등 주요국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시행과 코로나 백신보급 가속화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상반기 중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 추세

  * EIA 석유수요 전망(백만B/D, '21.5) : ('20.1H)90.15 → ('21.1H)95.86, 6.3% ↑

- **(품목/물량)** 미국 드라이빙 시즌 시작에 따라 휘발유 수요가 증가했으며, 산업 부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프타 등 원료용 석유제품 수요 증가

2021년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석유제품	금 액	24,168	1,867	2,391	2,743	2,920	3,060	12,980
	(증가율)	(-40.6)	(-44.5)	(-12.2)	(19.2)	(99.2)	(166.8)	(18.0)

주 : MTI 133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2021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출은 코로나19 회복세와 주요국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21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table>
<tr><th>분 야</th><th>세 부 내 용</th></tr>
<tr><td>수출여건</td><td>• 석유수급 현황(EIA)
– (수급) '21년 하반기 석유수요는 99.5백만b/d, 석유공급은 99.2백만b/d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 7.9% 증가
– (수요) '21년 세계 석유수요는 9,769만B/D로 '20년 대비 542만B/D 증가하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석유수요 회복은 '22년 이후에 기대
* EIA 석유수요 전망(백만B/D, '21.5) :
('20)92.27 → ('21)97.69 → ('22)101.42 (백만B/D, '20.12) : ('19)101.23
– (공급) '21년 세계 석유수요 회복에 따라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248만B/D 증가한 9,672만B/D로 전망(EIA)</td></tr>
<tr><td>제품/기술 동향</td><td>•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정책에 따른 '21년 수출여건 변화
<table><tr><th>구분</th><th>공약 요약</th></tr><tr><td>클린에너지, 인프라</td><td>• 탄소 중립을 수반한 100% 클린에너지 경제 지향
– 교통, 전기, 건축 등의 분야에서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 향후 10년 안에 5조 달러 투자 계획(연방정부 투자 1.7조 달러)</td></tr><tr><td>기후 변화</td><td>•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2050년 탄소 제로화)
• 신규건물의 탄소 배출 제로(2030) 및 발전소 탄소배출 제로(2035)</td></tr><tr><td>외교 및 대중 정책</td><td>• Global Value Chain 재편을 위한 다자무역체제 복원 등 동맹강화 우선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경하며, 동맹국을 통한 중국 압박 예상</td></tr></table>– (긍정 요인) 화석연료 규제에 따른 단기적 유가 상승으로 제품단가 상승
– (부정 요인)
① 단기적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와 정제 마진 악화 등으로 수출 채산성은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전망
②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동차의 전동화, 탄소 배출 제로(2050) 목표 이행 등으로 수송용 석유(휘발유/경유) 수출 감소 예상
③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무역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송용 석유수요의 회복이 어려우며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td></tr>
<tr><td>유가·원자재 환율영향</td><td>•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 전망(EIA)
– 세계경제 회복으로 유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전망하나 OPEC+ 감산 규모 완화 등 하락 가능성 존재
* 감산 축소 예상규모(OPEC+, 사우디, 만b/d) : ('21.5) 35, 25, ('21.6) 35, 35, ('21.7) 45, 40</td></tr>
</table>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2021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단가 및 물량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7.2% 증가한 193억 달러 전망

- **(단가/물량)** 2021년 하반기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43.6% 상승한 69.5$/b,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2.8억bbl 전망
  * 국제유가(WTI, $/b, 전년비%) : ('20.下) 41.7(-26.3) → ('21.下e) 57.8(38.7)
  * 수출단가($/b) : ('20.下) 48.4(-33.6) → ('21.下e) 69.5(43.6)
  * 수출물량(천b, 전년비 %) : ('20.下) 238,213(-16.1) → ('21.下e) 277,661(16.6)

-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정유시설 폐쇄 및 가동중단 검토로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탄소중립 달성 및 중장기 석유수요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정유시설 사용목적을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증가(원유 정제 → 부타디엔 생산 등)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정유시설 폐쇄 및 가동중단 검토 현황

정유사명	내용	정제능력
이네오스	오사카 정유공장 영구 폐쇄 결정	11.5만b/d
로열더치쉘	필리핀 정유공장 영구 폐쇄 결정	11만b/d
뉴질랜드 정유	뉴질랜드 Refining NZ(뉴질랜드 유일 정유시설) 폐쇄 검토	13.6만b/d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품목/물량)** 全제품군에서 전년 동기 대비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유, 중유 등 수송용 연료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2021년 석유제품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제품	24,168	(-40.6)	15,685	(24.0)	19,267	(67.2)	34,952	(44.6)

주 : MTI 133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철 강

◆ 2021년 상반기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159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153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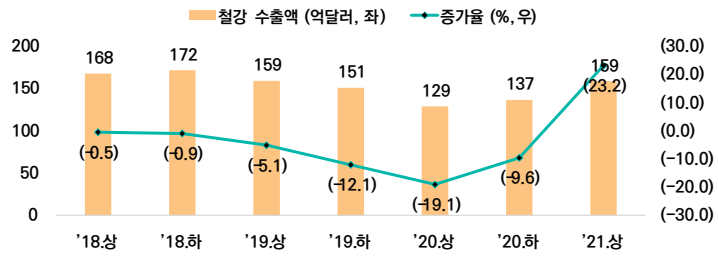
◆ 2021년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311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159억 달러 추정

반기별 철강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6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단가/물량)** 글로벌 수요 회복세로 철강제품 수출단가는 크게 상승했으나 물량은 내수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

* 철강재 수출단가($/톤) : ('19) 890 → ('20) 799 → ('21.상^{e}) 994(전년동기비 24.9%)

* 철강재 수출물량(백만톤) : ('19) 30.4 → ('20) 28.9 → ('21.상^{e}) 14.0(전년동기비 0.1%)

○ **(품목)** 열연, 냉연 등 주력 제품인 판재류와 봉형강류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강관은 주요 시장인 미국 수요 회복 지연으로 감소

2021년 상반기 철강제품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철강제품	금 액 (증가율)	26,557 (−14.5)	2,448 (5.9)	2,366 (3.4)	2,780 (12.9)	2,783 (38.9)	2,892 (62.8)	13,269 (22.4)

주 : MTI 6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글로벌 철강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철강가격의 상승세가 예상되나 각국의 수입규제 및 일부 수출물량의 국내 전환 등은 하방 요인

* 철강재 내수 증가율(전년동기비%, POSRI) : ('20.상) -10% (하) -6% ('21.상^{e}) 3% (하^{p}) 7%
* 한국산 수입규제(총 88건, '21.5 기준) : 미국 28건, 아세안 19건, 캐나다 9건, 호주 6건, 인도 5건 등

2021년 하반기 철강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수출여건	• (철강수요) '21년, 중국의 견조한 수요 및 지난해 부진했던 미국, EU 등 주요국의 수요 회복세로 전년비 5.8% 증가 전망(Worldsteel, '21.4) * '21년 철강수요 전망(전년 대비%) : (中) 3.0 (美) 8.1 (日) 6.5, (아세안) 6.2 (韓) 5.2 (EU) 10.2 • (수입규제) 232조 등 보호무역조치 기조 및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참고) 한국산 철강재는 21개국, 88건 규제(76)·조사(12) 중('20.5 기준)
원자재· 유가 영향	• (원자재) 철광석 가격은 현재 사상 최고 수준으로 톤당 200불을 돌파하였으며, 5~6월 고점 이후 하반기에는 하향세 전망(WSD, '21.5) - 상반기 철광석 가격은 글로벌 철강수요 회복, 브라질 공급 차질, 철광석 소비국인 중국과 최대 공급국인 호주의 교역갈등 고조 등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나 하반기에는 상승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 * 철광석 가격($/톤) : ('19) 93 ('20) 111 ('21.4) 179 ('21.5) 215 • (유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 미국의 친환경정책 기조로 원유산업의 신규채굴 제한 등이 우려되며 에너지강관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 - 다만, 하반기 세계 석유수요 회복과 OPEC 감산 효과로 가격 상승 시 강관류 일부 수출 증가 기대
철강가격 동향	• 하반기 철강가격은 코로나 이전('18, '19) 수준을 큰 폭 상회할 전망 *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 : ('19) -14.5 ('20) -4.0 ('21^{e}) 33.3
업종별 이슈	• (국내 수급)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 및 주요국의 공급차질로 인해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국내 철강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수요 증가 및 수입 감소로 인해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생산 규제와 증치세 환급율 조정 등으로 공급이 타이트하여 일부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 하반기는 글로벌 시장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한 국내 수급여건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 하반기 철강 수출은 일부 수출 물량의 내수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강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153억 달러 전망

- **(단가/물량)** 수출물량은 내수 수요 대응을 위한 물량 전환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

  - 하반기 철강제품 수출은 수출단가 증가세가 수출을 견인하면서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은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철강재 수출단가($/톤) : ('20.상) 796 (하) 804 ('21.상^{e}) 994 (하^{p}) 970(전년동기비 +20.7%)

    * 철강재 수출물량(백만톤) : ('20.상) 14.0 (하) 14.8 ('21.상^{e}) 14.0 (하^{p}) 13.7(전년동기비 -7.5%)

- **(품목)** 판재류 중심으로 봉형강류, 강관 등 전반적인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나, 상반기 대비 증가 폭은 둔화될 전망

  * '21.하 수출^{p}(억 달러, 전년동기비%) : 판재류 95.6(13.6), 봉형강류 10.2(6.0), 강관 8.6(2.9)

- **(지역)** 중국은 전년도 기저효과로 하반기 감소폭이 확대 되나, 그 외 주요국인 미국, EU 등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1.하 지역별 수출 증가율^{p}(전년동기비%) : (美) 56.9 (日) 17.4 (아세안) 2.4 (EU) 30.7 (中) -24.0

2021년 철강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철강제품	26,557	(-14.5)	15,884	(23.2)	15,257	(11.7)	31,141	(17.3)

주 : MTI 6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선 박

◆ 2021년 상반기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118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117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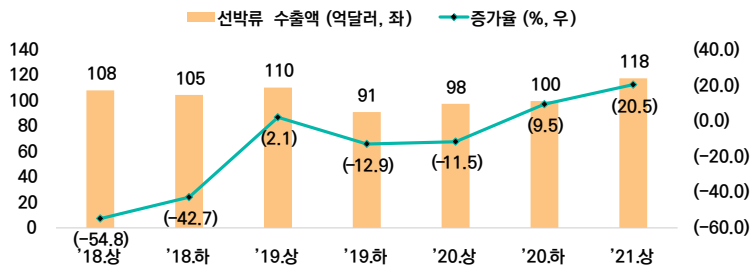
◆ 2021년 선박 수출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235억 달러 내외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118억 달러 추정

반기별 선박류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746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8~2019년 LNG운반선 특수에 따라 척당 1.8억 달러를 상회하는 LNG운반선 등 수출 물량 증가

* 수출 물량 : ('20.상) 82척, 341만 CGT → ('21.상) 97척, 470만 CGT (CGT +37.6%)
* LNG운반선 수출량 : ('20.상) 13척 → ('21.상) 30척
* '21.상 선종별 수출량(만CGT, 전년동기비%) : LNGC 244(52.1), TK 137(29.1), CONT 51(10.8), LPGC 6(1.3), 해양플랜트 4(0.9), VLEC+FSRU 등 기타 27(5.8)

2021년 상반기 선박류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선박류	금 액	19,749	3,483	1,496	2,345	1,222	1,369	9,914
	(증가율)	(-2.0)	(23.3)	(3.5)	(62.8)	(14.4)	(-14.9)	(18.2)

주 : MTI 746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하반기 중 LNG운반선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선종 중심으로 수출 호조 예상되나, 최근 후판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건조 차질 가능성 존재

2021년 하반기 선박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수출여건	• (긍정요인) 가스운반선, 대형컨테이너선 등 주력선종 수출호조 * LNG운반선의 경우, '18년~'19년 특수로 수출량 증가 * LNG운반선 수주량(백만CGT) : ('17)0.5 ('18)5.6 ('19)4.1 ('20)3.1 ('21.1~4)0.6 • (부정요인) - 후판 수급 불균형으로 건조 차질 및 원가 인상으로 수익 악화 - 유가 상승에도 불구, 시추시장 침체로 드릴십 인도지연 가능성
제품/기술 동향	• 컨테이너선 - 시황 호조 및 운임 강세로 13,000TEU 이상 대형컨선 발주량 급증, '21.1~4월 중 108척 발주되며 전년동기(8척) 대비 1,250% 증가 - 중국 YZJ 산하 Changbo Shipyard는 지난 2012년 조업 중단 이후, 최근 컨테이너선 수요 강세로 인해 9년 만에 선박 건조 재개 • LNG운반선 - (카타르) 카타르페트롤리엄(QP), 37개 선사 대상 입찰 초대장 발송('21.3.16)하였으며 7월 중 선사 대상 상업 입찰 예정 → 금년 하반기 중 슬롯 예약물량(총 151척 추정, 韓 135척, 中 16척) 중 일부 발주 예상 * QP,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 통해 LNG 생산능력을 7,700만톤에서 '26년(1단계) 1억1,000만톤, '27년(2단계) 1억2,600만톤까지 단계적 확장하고, LNG운반선 선대 74척에서 190척까지 확대 계획 - (러시아) 노바텍, Arctic LNG2에 투입예정인 10억 달러 규모의 Arc4급 LNG운반선 4+2척 신조발주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5월말), 8월까지 선주사 최종 선정 계획 → 인도예정일(2023년) 고려 시 연내 발주 가능성 높음 • 가스추진선박 -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가스운반선을 제외한 범용상선에서도 가스연료추진 수요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혜 예상 * '20년 이후 가스추진 범용상선 수주점유율 50% 상회

〈가스추진선(가스운반선 外) 발주 및 수주현황(천CGT, 비중%)〉

구분		'18	'19	'20	'21.1~4
총 발주(A)		35,104	29,099	19,241	16,679
가스 추진선	발주(B)	2,157	3,860	2,659	2,920
	비중(B/A)	(6.1)	(13.3)	(13.8)	(17.5)
	수주(C)	578	967	1,554	1,676
	비중(C/B)	(26.8)	(25.1)	(58.4)	(57.4)

분 야	세 부 내 용
유가· 원자재 환율영향	• 수급 불균형 및 원재료가 상승으로 후판가 급등하며 원가부담 가중 * 유통향 후판가, '21.5.21 기준 톤당 130만원으로 1년내 2배 상승 * 철광석 가격, '21.5.21 기준 톤당 214.2달러로 10년만에 최고치 • 최근 배럴당 60달러 이상 고유가 기조 이어지며 FPSO 발주 재개 * 한국, '20년 FPSO 수주 전무했으나, 올 들어 FPSO 3기 수주 → 삼강엠앤티(4월), 한국조선해양(5월), 대우(7월 예정) * 연내 Petrobras가 추가발주 예정인 FPSO 1기 수주 가능성 * WTI($/bbl): ('21.1)52.1 → ('21.2)59.1 → ('21.3) 62.4 → ('21.4)61.7 → ('21.5)64.9 • 조선산업은 헤비테일 수주로 인한 환차손 최소화를 위해 수주액의 60~90%를 환헤지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 영향은 제한적이나, 원화 강세 시 선가 상승 요인
업종별 이슈	•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 물량 확대 반면, 국내 후판 생산량 축소, 중국 증치세 환급 폐지('21.5월) 등 국내 공급 타이트 해지며 후판 수급 불균형 심화 → 선박 수출 차질 우려 확대 • IMO 환경규제 강화, 가스추진선박 수요 증가 등 글로벌 조선산업 패러다임 친환경·스마트화로 급속히 전환 → 우리나라 수혜 예상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 2021년 하반기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117억 달러 전망

- **(품목)** LNG운반선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컨테이너선 및 해양플랜트 물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선종별 비중은 LNG운반선(41.5%), 탱커(26.2%), 컨테이너선(24.4%) 순

  - 해양플랜트는 하반기 중 드릴십 2기 , FLNG 1기 등 약 33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예정되어 있어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 예상되나, 드릴십의 경우 현재 시추시장 업황 고려 시 인도지연 가능성 존재

2021년 선종별 수출 전망

(단위 : 천CGT)

구분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1년		
	'20	'21e	증감	'20	'21p	증감	'20	'21p	증감
탱커	1,461	1,366	-6.5	1,337	921	-31.1	2,798	2,287	-18.2
컨테이너선	523	507	-3.0	638	857	34.2	1,162	1,364	17.5
LNG운반선	1,139	2,445	114.7	1,758	1,459	-17.0	2,897	3,903	34.8
LPG운반선	132	59	-55.1	29	100	243.2	162	160	-1.3
해양플랜트	94	44	-52.7	-	149	-	94	194	105.6
기타	63	273	330.7	167	29	-82.4	230	302	31.2
합계	3,413	4,695	37.6	3,929	3,515	-10.5	7,342	8,210	11.8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물량)** 2021년 하반기 수출물량은 72척, 352만 CGT로 전년 동기(91척, 393만 CGT) 대비 10.5% 감소 전망(CGT 기준)

2021년 선박류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선박류	19,749	(-2.0)	11,768	(20.5)	11,693	(17.2)	23,461	(18.8)

주 : MTI 746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동차부품

◆ 2021년 상반기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의 자동차 수요회복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한 117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118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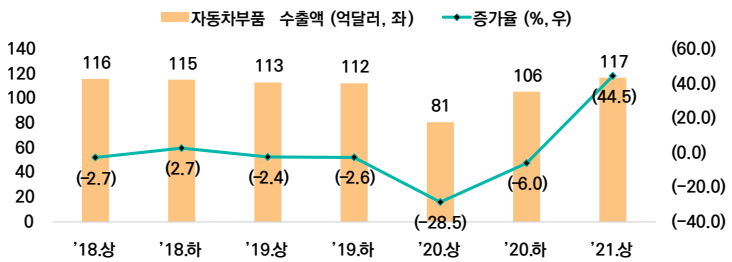
◆ 2021년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25.7% 증가한 234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한 117억 달러 추정

반기별 자동차부품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74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장의 자동차 수요회복 영향으로 상반기 자동차부품 수출은 2019년 하반기 실적을 소폭 상회

* 2021년 1~4월 미국시장 자동차 판매(전업체) : 541만대(전년 대비 +29.1%)
* 2021년 1~4월 미국內 현대·기아 판매 : 48만 6천대(전년 대비 +43.2%, 점유율 9%)

2021년 상반기 자동차부품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자동차부품	금 액	18,640	1,806	1,804	2,176	2,041	1,819	9,646
	(증가율)	(−17.3)	(3.7)	(0.1)	(12.5)	(99.9)	(182.2)	(35.1)

주 : MTI 74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2021년 하반기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능성, 원자재가 상승, 해상운송 수요 급증 등 부정적 요인 상존

2021년 하반기 자동차부품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수출여건	• 주요 시장의 자동차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 원유, 철강, 구리 등 원자재가 및 해상운임 상승, 선복 부족 등의 리스크로 V자 회복세 지속 여부는 불투명 •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변종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 •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제품/기술 동향	• 세계적인 환경규제 기조에 따른 자동차의 脫내연기관, 전동화 추세 가속으로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체질 개선(미래차 전환, M&A 등) 및 관련 부품 개발 시급 – 국내 완성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폭스바겐, 렉서스 등)의 연이은 전동화 계획 발표 • BEV, FCEV, 자율주행차 등의 개발에 따른 자동차산업군 외연 확장 – 전기, 전자, IT 관련 기업의 차량개발 참여
유가·원자재 환율영향	•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기업 부담 가중(생산원가 상승 압박) –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수출 호조세 둔화 예상
업종별 이슈	• 한국GM(반도체수급 불안 내수 부진), 르노삼성(노사분규), 쌍용(법정관리)등 완성차업계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 정책금융기관(기보, 신보, 산업은행 등) 및 시중은행을 통한 신규 자금 지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방안 필요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2021년 하반기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118억 달러 전망

- 백신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 북미, 유럽 등 주요국 경제 및 자동차 수요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자동차부품 수출도 지속적인 호조세를 이어간 전망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은 전기·전자, IT 등 전방 산업의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중국의 반도체 대량 매입 등으로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 마진 등으로 제조사가 단기간에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한 생산 차질, 해상운임 급등으로 인한 물류 이동 제한 등으로 아시아 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회복세 지연 가능성 상존

  * 국내車업계 인도 진출(연 생산량/천대) : (현대차-첸나이) 650 (기아차-아난타푸르) 300
  * 국내車업계 베트남 진출 : CKD로 수출 후 현지 합작사 조립(현대-탄콩, 기아-타코)
  *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생산공장(21년 말 완공) 및 차량용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추진 중
  * 자동차부품 기업 진출현황(개사, 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 기준) : (인도) 57 (베트남) 27

2021년 자동차부품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부품	18,640	(-17.3)	11,679	(44.5)	11,750	(11.3)	23,429	(25.7)

주 : MTI 74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디스플레이

◆ 2021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모바일 OLED · 비대면 IT제품 수요증가 및 LCD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88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 증가에도 불구, 전년 대비 LCD 품목 생산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102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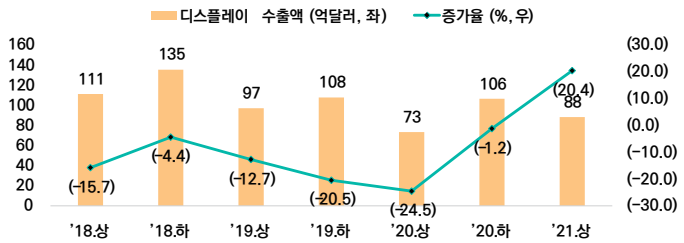
◆ 2021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90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88억 달러 추정

반기별 디스플레이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836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LCD)** 사업전환에 따른 LCD 감축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IT 제품 수요 증가와 LCD 가격 상승으로 1~5월 중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

  * LCD 가격($) : [55인치] ('20.上)114 → ('21.上e)206, [60인치] ('20.上)129 → ('21.上e)220

- **(OLED)** 글로벌 모바일 수요 증가와 폴더블 디스플레이, 홀 디스플레이 등 高부가가치 제품 확대로 1~5월 중 41.4% 증가

  * 한국 패널기업 모바일용 OLED 출하량(백만대) : ('20.上)157.0 → ('21.上e)225.2

2021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평판디스플레이		금 액	17,983	1,810	1,362	1,411	1,428	1,522	7,532
		(증가율)	(-12.2)	(32.2)	(19.1)	(-1.1)	(43.5)	(38.6)	(24.9)
	OLED	금 액	10,906	1,220	841	838	844	972	4,714
		(증가율)	(6.4)	(52.1)	(32.9)	(8.5)	(57.5)	(64.1)	(41.4)
	LCD	금 액	7,076	590	521	573	584	550	2,818
		(증가율)	(-30.9)	(4.0)	(2.0)	(-12.3)	(27.0)	(8.7)	(4.5)

주 : 평판디스플레이는 MTI 8361, OLED는 MTI 836120, LCD는 MTI 836110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OLED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와 LCD 패널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DDI 등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우려

2021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수출여건	• **(글로벌 시장)** '21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프리미엄 OLED·IT 제품 수요 증가 및 LCD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한 1,573억 달러 전망 • **(수요)** 노트북 등 비대면 IT 제품 수요 확대와 OLED를 채용한 모바일·TV 등 한국 주력 제품에 대한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긍정적 시황 예상 • **(공급)** 수요 증가에 따른 OLED 생산 확대 경쟁 속에 중국의 10.5세대 LCD 신규공장 가동 등으로 OLED, LCD 공급 모두 증가 전망 * 글로벌 OLED 생산Capa(만㎡) : [대형]('20)759 ('21)1,114, [중소형] ('20)1,720 ('21)1,916 * 지역별 LCD 생산Capa(만㎡) : [韓] ('20)4,465 ('21)3,150, [中] ('20)17,634 ('21)21,299 • **(가격)** 수요증가로 인한 LCD 가격 상승,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대형 OLED 가격 하락으로 TV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 (LCD) DDI, 편광판 등 LCD 핵심 소재부품의 수급 애로 발생에 따른 TV 세트기업의 LCD 확보 경쟁으로 패널 가격이 크게 상승 할 전망 * LCD 가격($) : [55인치] ('20.下)161 → ('21.下)208, [60인치] ('20.下)173 → ('21.下)227 - (OLED)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로 모바일 가격 소폭 하락, LGD의 대형 OLED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 OLED 평균 가격($) : [TV]('20.下)749 → ('21.下)670, [모바일]('20.下)56 → ('21.下)52
제품/기술 동향	•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및 UDC(Under Display Camera), COE(color filter on encapsulation) 등 신기술·신공정 개발 및 적용 확대 • 폴더블폰, 롤러블 TV 등 高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 * '21년 OLED 수출에서 폴더블+롤러블 수출 비중이 10% 수준까지 증가 전망
유가·원자재 환율영향	• **반도체 관련 부품 부족에 따른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우려** - 자동차, 휴대폰 등 전산업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底부가가치 디스플레이용 반도체(DDI, T-CON 등) 수급애로 발생 - DDI 등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는 '21년 말까지 부족 할 것으로 예상 * 대형 DDI 수급 전망(%, 5% 이상 적정 수준) : ('21.Q2^{e}) -7 (Q3^{p}) -6 (Q4^{p}) 3
업종별 이슈	• **중국의 대규모 OLED 투자 및 생산 확대에 따른 추격 가속화** - '18년 한국을 넘어 LCD 시장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올라 선 이후 OLED 투자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 빠르게 추격 중 * '21년 중국 OLED 신·증설 : [신규가동] Vision 6G V3('21.Q2), BOE 6G B12('21.Q4) * OLED 생산캐파(만㎡) : [韓] ('20)1,936 → ('25^{p})4,655, [中] ('20)551 → ('25^{p})3,044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 2021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102억 달러 전망

- **(LCD)** LCD 패널가격은 상승 추세이나, DDI, T-con 등 반도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일부 LCD 제품에서 생산 축소가 진행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한 32.5억 달러 전망
  * LCD 가격($) : [55인치] ('20.下)161 → ('21.下p)208, [60인치] ('20.下)173 → ('21.下p)227
  * OLED 모바일에는 DDI가 1개 사용되나, TV의 경우 15~20개 DDI 사용
  * 국내 LCD 생산캐파(백만만㎡) : ('20.下)21.9 → ('21.下p)16.6

- **(OLED)** 스마트폰과 LTPO(저전력)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작년 4분기 수요가 폭증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올 하반기 OLED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69.6억 달러 전망
  * 글로벌 모바일 OLED 출하량(백만개) : ('20.下)268 → ('21.下p)332
  * 글로벌 모바일 OLED 시장에서 LTPO 비중 : ('20.下)2% → ('21.下p)17%

- 디스플레이는 국내 패널기업 모듈공장과 글로벌 세트기업이 위치한 중국과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예상

2021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평판디스플레이	17,983	(-12.2)	8,831	(20.4)	10,207	(-4.1)	19,038	(5.9)
OLED	10,906	(6.4)	5,383	(33.6)	6,957	(1.2)	12,340	(13.1)
LCD	7,076	(-30.9)	3,448	(4.3)	3,250	(-13.8)	6,698	(-5.3)

주 : 평판디스플레이는 MTI 8361, OLED는 MTI 836120, LCD는 MTI 836110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선통신기기

◆ 2021년 상반기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한 79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73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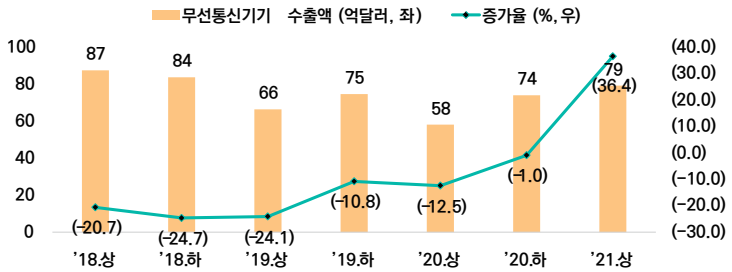
◆ 2021년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52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한 79억 달러 추정

반기별 무선통신기기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81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국업체들의 공격적인 출하량 확대로 상반기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업체 스마트폰이 유럽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임

* 中 화웨이를 제외한 4개 업체(샤오미, 오포, 비보, 리얼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분기 8,080만대에서 '21.1분기 1억 3,480만대로 1년 만에 66.8% 증가(카운터포인트리서치, '21.4)
* 삼성전자 '21.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2%로 1위를 탈환(카운터포인트리서치, '21.4)

2021년 상반기 무선통신기기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무선통신기기		금 액	13,181	1,356	1,175	1,278	1,449	1,198	6,456
		(증가율)	(-6.4)	(57.9)	(10.3)	(5.8)	(79.7)	(41.4)	(34.9)
	무선통신기기부품	금 액	7,235	823	603	674	700	633	3,433
		(증가율)	(-0.4)	(71.7)	(23.1)	(25.1)	(92.8)	(62.6)	(51.9)
	무선전화기	금 액	4,099	381	432	437	569	413	2,233
		(증가율)	(-13.6)	(87.4)	(5.2)	(-9.6)	(89.4)	(20.8)	(28.3)

주 : 무선통신기기는 MTI 812, 무선통신기기부품은 MTI 8128, 무선전화기는 MTI 812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2021년 상반기 급증했던 부품 수출은 중국 제조사들이 하반기 출하량을 다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수출은 소폭 감소 또는 보합 예상

- 단, 국내업체 스마트폰의 유럽 시장 판매 호조와 올해 8월 폴더블 폰 출시로 무선전화기 판매는 증가세 지속 예상

2021년 하반기 무선통신기기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수출여건	• '21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전년 대비 9~13% 성장 전망 * 카운터포인트리서치('21.1월) : ('20) 1,330 → ('21e) 1,520(13%) * Gartner('21.2월) : ('20) 1,379 → ('21e) 1,541(11.4%) • 5G 스마트폰은 '21년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50%, '25년에는 69% 차지 전망(IDC, '21)
제품/기술 동향	• (삼성전자) A52, A72 등 중저가 제품군 사양 강화 – 스마트폰 시장의 '합리적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준프리미엄 전략 추진, 중급 사양의 5G 스마트폰 모델군을 확대 출시할 계획 – 한편,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갤럭시 Z폴드, 플립 등을 출시하여 플래그십과 중저가형 '투트랙' 전략을 유지 * 삼성전자는 3.17일, A시리즈 언팩행사를 개최(삼성전자 언팩행사는 최고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Z·노트 시리즈 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저가폰 공개행사를 개최한 것은 최초) • (美 애플) 프리미엄 시장 경쟁우위 유지 – 애플은 '21년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았으나 작년 말 출시한 '아이폰12' 시리즈는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 '21.1분기 매출 895억 8,800만 달러(약 99.8조)를 달성 * '21.1분기 기준, 삼성전자보다 약 1,700만대 적은 5,950만대를 판매하였지만 매출에서 삼성전자를 앞서 프리미엄 제품군 1위를 공고히 함 • (中 샤오미·오포·비보·리얼미) 프리미엄군 강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 – 중국 기업들은 기존 저가형·내수형 제품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략 다변화 * (샤오미) '21.3월 컨퍼런스에서 대표 라인업인 '미11 프로', 샤오미 최초의 폴더블 폰 '미믹스 폴드' 등 대규모 프리미엄 제품군 공개, 특히 '미 11 프로'는 최초로 한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한국경제, 4.19) * (오포) MWC상하이 2021에서 롤러블폰 '오포X2021' 최초 시연, 프리미엄·폴더블 폰을 저가형으로 출시하여 인도 등 신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경쟁 예상
유가·원자재 환율영향	• 유가·원자재 등에 따른 영향 제한적임
업종별 이슈	• LG전자 무선사업부 철수 – LG전자는 4.5일 모바일 사업부문 철수를 결정, 7월 31일자로 스마트폰 생산 및 판매를 종료할 예정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2021년 하반기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73억 달러 전망

- 중국 업체들의 시장진출 공세로 국내 유일 휴대폰 생산업체인 삼성전자는 하반기 점유율 방어에 험로가 예상되며, 국내 2위 LG전자의 무선사업 철수 결정에 따른 생산종료로 8월 이후 일정 부분 수출 감소 영향 발생

  * '21.1분기 기준, 삼성전자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탈환하였으나, 중국기업들의 시장 지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기업의 점유율은 큰 변동 없음(21 → 22%)
  * 미국 제재로 화웨이 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13% ↓)하였으나, 부부가오(BBK) 산하 오포·비보·리얼미 점유율이 크게 증가(9% ↑)하여 화웨이 공백을 대부분 흡수, 3개 자회사의 '20년 연간 출하량은 2억 6,270만대로 1위인 삼성전자를 추월

주요 업체별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분기별)

(단위 : 점유율 %)

업체명	20.1Q	20.2Q	20.3Q	20.4Q	21.1Q
삼성	21%	20%	16%	16%	22%
애플	12%	14%	21%	21%	17%
샤오미	8%	10%	11%	11%	14%
오포	8%	9%	9%	9%	11%
비보	7%	8%	8%	8%	10%
화웨이	17%	20%	8%	8%	4%
리얼미	1%	2%	4%	4%	4%
기타	26%	17%	23%	23%	18%
Total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카운터포인트리서치(4/30)

- A52·A72 등 중저가 제품군 사양 개선에도 불구, 가성비를 중시하는 스마트폰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플래그십 제품군인 S시리즈 판매가 감소하여 평균 단가는 감소 예상

2021년 무선통신기기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무선통신기기	13,181	(-6.4)	7,910	(36.4)	7,300	(-1.1)	15,210	(15.4)
무선통신기기부품	7,235	(-0.4)	4,231	(52.1)	4,032	(-9.4)	8,263	(14.2)
무선전화기	4,099	(-13.6)	2,716	(28.8)	2,282	(14.8)	4,998	(21.9)

주 : 무선통신기기는 MTI 812, 무선통신기기부품은 MTI 8128, 무선전화기는 MTI 812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컴퓨터

◆ 2021년 상반기 컴퓨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68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컴퓨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75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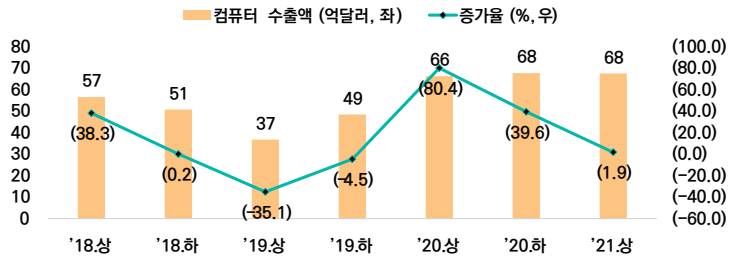
◆ 2021년 컴퓨터 수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43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컴퓨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68억 달러 추정

반기별 컴퓨터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813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생산)** 데이터서버向 기업용 SSD 수요는 소폭 둔화되었으나, 노트북, 게임콘솔(XboX, PS5) 등 비대면 소비자용 SSD 수요 확대로 생산량 증가

  * '21년 1분기 SSD 출하량은 약 9,944만 대로 추정 (Trendfocus, '21.5)

- **(단가)** 상반기 SSD 판매단가는 낸드플래시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약 5~10% 감소했으나, 하반기로 예상되었던 가격 반등 시기가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앞당겨져 최근 반등 중

  * SSD 평균판매단가(ASP) 추이(달러, IDC) : ('19) 71.2 ('20) 91.8 ('21e) 85.4

2021년 상반기 컴퓨터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컴퓨터		금 액	13,426	963	1,039	1,264	1,069	1,281	5,616
		(증가율)	(57.2)	(5.7)	(-4.1)	(6.9)	(1.6)	(7.5)	(3.6)
	전산기록매체	금 액	10,086	704	780	917	752	971	4,124
		(증가율)	(113.3)	(1.8)	(-6.1)	(7.8)	(-8.9)	(1.3)	(-0.8)

주 : 컴퓨터는 MTI 813, 전산기록매체는 MTI 8138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백신접종 확대 및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한동안 감소하였던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용 서버 투자 재개, 일반 소비자용 제품 SSD 탑재 증가로 2021년 하반기는 기업용·소비자용 SSD 수요 동반성장 예상

○ 다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후발 업체들의 기술추격으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2021년 하반기 컴퓨터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제품/기술 동향	• (삼성전자) 6세대 V낸드 기반 SSD 출시, 7세대 낸드 하반기 양산 계획 – 최근 출시한 6세대 SSD는 적층단수는 낮으나 '싱글스택' 기술로 제조공정 및 데이터 전송속도 측면에서 유리 * 소비자용 'PCIe 4.0 980Pro', 기업용 SAS-4표준 PM1653 출시('21.4) • (SK하이닉스) 128단 기술기반 신제품 출시, 7세대 176단 낸드플래시 연내 양산 계획 * 소비자용: Gold P31 NVMe('21.1), 기업용: PE8110 E1.S('21.4) • (美 마이크론) 176단 낸드플래시 개발 성공 – '20.11월 업계 최초로 176단 낸드메모리 개발에 성공, '21.5월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 • (中 YMTC) 자체기술 SSD 제품 출시 – '20.9월 자사기술을 이용한 중국 최초의 SSD 제품 출시, '20.4월 128단 제품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양산이 지체되고 있음 ('20.11, 조선비즈) * '20.11월 2,200억원 디폴트 선언에 이어 12월 한달만에 또 다시 4,900억원 규모 회사채 디폴트 선언 (조선비즈, '20.12)
유가·원자재 환율영향	• 유가·원자재 등에 따른 영향 제한적임
업종별 이슈	• 후발업체 기술 추격 심화 – 적층 초미세공정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 어려움 • 中 반도체 굴기 지속 –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수년째 천문학적인 자본투자를 단행, 최근 지방정부 보유 기업들의 경영 애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SSD 생산기업들은 양산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현재 점유율은 미미하나, 기술력에서는 국내 기업과 격차를 상당히 줄인 것으로 판단 • SK하이닉스 인텔 SSD 사업부 인수 – SK하이닉스는 '20.10월 인텔 SSD, 낸드사업부문을 90억 달러에 인수, 올해 연말까지 SSD 사업 관련 지재권, 인력 등을 이전받을 계획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 2021년 하반기 컴퓨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75억 달러 전망

- **(생산)** 하반기는 5G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모바일향 수요 증가, 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회복으로 본격적인 증가세 돌입 전망
  * '21년 SSD 출하량은 약 10.5% 증가하여 최초로 4억 대를 돌파할 전망(IDC, '20.12)
  * 글로벌 SSD 시장규모(십억 GB, DramExchange) :
    [소비자용] ('19) 88 → ('20) 108 → ('21) 134^{e} → ('22) 161^{e}
    [기업용] ('19) 53 → ('20) 81 → ('21) 104^{e} → ('22) 151^{e}

- **(단가)** 전자기기 데이터 처리용량 증가로 인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2021년 하반기 SSD 판매단가 상승 예상
  * 트렌드포스 '21년 2분기 SSD 가격전망 상향 조정 :
    [기업용 SSD] 전분기 대비 0~5% 하락 → 0~5% 상승, [소비자용 SSD] 전분기 수준 → 3~8% 상승

- **(지역)** 美 경기회복에 따른 데이터서버 구축수요 증가, 中 5G 스마트폰 비중 확대에 따른 모바일용 수요 증가 예상

2021년 컴퓨터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컴퓨터	13,426	(57.2)	6,770	(1.9)	7,500	(10.6)	14,270	(6.3)
전산기록매체	10,086	(113.3)	4,960	(-3.2)	5,470	(10.3)	10,430	(3.4)

주 : 컴퓨터는 MTI 813, 전산기록매체는 MTI 8138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섬유류

◆ 2021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61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섬유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60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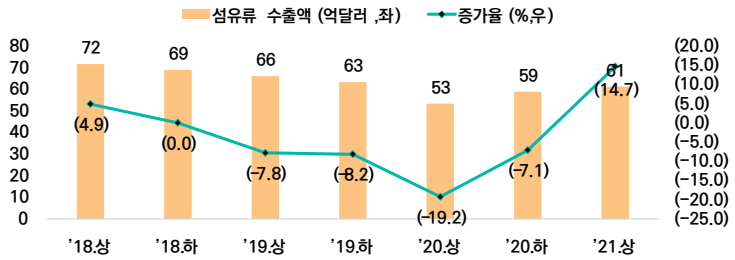
◆ 2021년 섬유류 수출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121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2021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61억 달러 추정

반기별 섬유류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4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전방산업 경기회복으로 의류용 소재 및 산업용 섬유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마스크 및 보호복 등의 방역용품 수요는 감소

* 마스크 수출(전년 동월 대비 %) : ('21.1) -82.4 (2) -91.5 (3) 7.9 (4) -58.9 (5) -74.6

2021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섬유류	금 액	11,238	911	844	1,075	1,100	1,076	5,007
	(증가율)	(-13.3)	(-8.0)	(-24.0)	(9.0)	(46.4)	(57.5)	(10.7)
섬유직물	금 액	5,330	435	395	512	549	519	2,411
	(증가율)	(-23.3)	(-13.0)	(-21.9)	(0.1)	(55.3)	(65.4)	(10.3)
섬유제품	금 액	3,654	274	244	313	312	304	1,447
	(증가율)	(15.3)	(-4.5)	(-37.5)	(28.0)	(27.9)	(23.2)	(2.4)
원료/사	금 액	2,254	202	205	250	239	254	1,150
	(증가율)	(-20.8)	(-0.6)	(-4.2)	(8.5)	(55.6)	(106.3)	(24.4)

주 : 섬유류는 MTI 4, 섬유직물은 MTI 43, 섬유제품은 MTI 44, 원료/사는 MTI 41+4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미국의 中신장산 면화 수입제제와 관련이 없는 국산 섬유 소재의 상대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EU 및 선진국의 산업용·친환경 소재 수요 급증에 따른 화섬 수출 증가 전망

2021년 하반기 섬유류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이 슈	세 부 내 역
수출여건	• (미국) 탈중국 정책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對中 수입규제 등으로 중국산 제품과 가격경합에 있는 국내산 소재의 수요 확대 * '21.1~4월 對美 면직물 섬유 수출(전년 동기 대비 %) : 69백만불(+55.8) - 미국은 中 신장산 면화 수입 제재(신장산 면화는 中 전체 생산량의 84%) • (EU) 경기침체에 대비한 적극적인 부양책 효과 등으로 의복 및 자동차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의류용·산업용 소재의 수출 증가 * '21.1~5월 對EU 섬유류 수출(전년 동기 대비 %) : 361백만불(+5.7)
제품/기술 동향	# 고부가가치소재 개발 및 수출(화섬업종) • (코오롱인더스트리) 5세대 이동통신, 수소 경제 관련 고부가 가치 신소재 시장의 선점을 위해 주력아이템에 적극 투자 - 5G 광케이블 수요에 대비하여 아라미드 생산설비를 증설(연산 2.5천톤)하고, 수소 연료전지 핵심소재(멤브레인) 수출 확대 도모 * 멤브레인은 '13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 • (효성티앤씨) 글로벌 홈 트레이닝 의류 수요 증가, 중국 생산 기업의 파산 우려 등으로 효성티앤씨 생산 제품의 수요 급증 - 전 세계 요가복, 레깅스 등의 수요 급증, 中 스판덱스 생산 3위 업체(산둥루이)의 채무불이행으로 중국내 사재기 현상이 발생
업종별 이슈	# 신장산 면화 사용 제재(면방업종) • 국내 방직업체는 중국 外 지역에서 원면을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 글로벌 브랜드의 신장산 원면 제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중국산 원면은 다른 국가의 원면價보다 높고, 국내 업체는 원면 품질 및 한·미 FTA 관세혜택을 고려하여 미국산 원면을 사용 * '20.3~'21.2 국가별 원면가격(¢/lb) : 중국(88.7), 미국(74.0), 파키스탄(69.1), 인도(66.1) * '20년 한국의 국가별 원면 수입(톤, 비중 %) : 미국(66,447, 57.7), 브라질(45,842, 39.8), 인도(1,368, 1.2), 베트남(535, 0.5), 터키(395, 0.3), 코스타리카(318, 0.3) • (애로사항) 신장産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美 관세청(CBP) 및 의류업체 요구의 행정처리(수입증명서 등)가 엄격해질 전망 * '20년 한국의 對美 면 소재 수출(천톤, 전년 대비 %) : 원사(7.0, +5.0), 직물(11.6, +43.6)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 2021년 하반기 섬유류 수출은 기저효과 감소 및 방역용품 수요 급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60억 달러 전망

* '20년 섬유류 수출(전년 동월 대비 %) : ('20.1Q) -2.2 (2Q) -348 (3Q) -7.6 (4Q) -6.6

- **(물량/단가)** 하반기 수출은 기저효과 감소에 따라 수출물량 증가폭은 둔화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세는 지속
  * 수출물량(천톤,전년 동기 대비%) : ('20.下) 1,315(-3.7) → ('21.下p)1,373(+4.4)
  * 수출단가($/kg,전년 동기 대비%) : ('20.下) 4.48(-3.5) → ('21.下p)4.37(-2.4)

- **(품목)** 섬유 소재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섬유제품은 마스크 등의 방역제품 수요 급감으로 소폭 감소세 예상
  * 마스크 수출액 및 비중(백만불, 전년 대비%) : '19년(81, 2.6) → '20년(692, 18.9)

- **(지역)** 의류 생산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남미 지역으로 소재 수출이 급증할 전망이나, 변종 바이러스 확산시 지역별 생산 중단 리스크 상존

2021년 섬유류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섬유류	11,238	(-13.3)	6,130	(14.7)	6,007	(1.9)	12,137	(8.0)
섬유직물	5,330	(-23.3)	2,766	(7.9)	2,881	(4.2)	5,647	(6.0)
섬유제품	3,654	(15.3)	1998	(17.0)	1919	(-1.4)	3,917	(7.2)
원료/사	2,254	(-20.8)	1,367	(27.3)	1,207	(2.3)	2,573	(14.2)

주 : 섬유류는 MTI 4, 섬유직물은 MTI 43, 섬유제품은 MTI 44, 원료/사는 MTI 41+4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가 전

◆ 2021년 상반기 가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한 40억 달러 추정

◆ 2021년 하반기 가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38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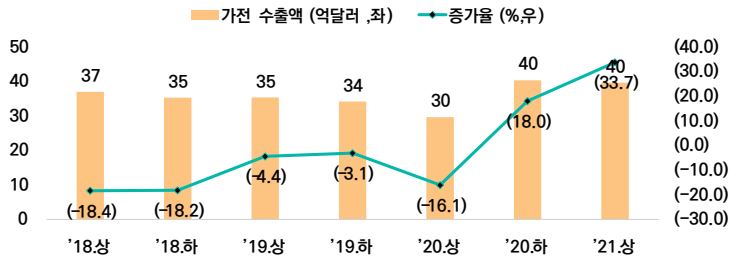
◆ 2021년 가전 수출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78억 달러 전망

1 2021년 상반기 수출 동향 및 추정

» 2021년 상반기 가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한 40억 달러 추정

반기별 가전 수출 동향 및 추정(2018년~2021년)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주 : 2021년 상반기는 추정치, MTI 8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활동 제약으로 여행 등을 대신해 가전제품에 소비가 집중되는 '대체소비' 트렌드가 나타나며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가전 수요 증가
  - * '21년 글로벌 가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1.8% 증가한 4,056억 달러,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28.3억 대로 전망(유로모니터, '21)
  - * '20년 전체 가계소비는 약 4.4% 감소한 반면, 비대면 소비는 4.3% 증가(KDI, 5.11)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등 대형·프리미엄형 제품군 중심으로 판매 증가 등으로, 평균 제품 단가는 상승 추세

2021년 상반기 가전 수출 동향(1~5월)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단위	2020년	2021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가전	금 액 (증가율)	6,989 (0.7)	615 (19.0)	581 (10.1)	723 (18.0)	711 (69.3)	706 (89.3)	3,336 (36.2)

주 : MTI 8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21년 하반기 수출여건 현장점검 결과

» 하반기 가전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견조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 하반기 기저효과로 인해 수출은 소폭 감소 예상

-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가계소비가 문화, 여행 활동 등 타 산업으로 이동하는 등 '대체소비'에 따른 반사이익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2021년 하반기 가전 수출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 야	세 부 내 용
제품/기술 동향	• (삼성전자) 프리미엄 중심 주요가전 판매 호조 – 고가형 '비스포크'시리즈 판매 호조로 '21.1분기 소비자가전부문(CE) 영업이익 1.12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영업이익 달성 – 프리미엄 '비스포크'브랜드를 생활가전 전체로 확대한 '비스포크 홈'신제품 대거 출시 예정(상반기 내 17개 제품 출시) * 삼성전자 가전(CE)부문 매출액(조원) : ('20.1Q) 10.3 → (2Q) 10.17 → (3Q) 14.09 → (4Q) 13.61 → ('20.1Q) 12.99 • (LG전자) 프리미엄군 판매 호조, 신가전 품목 시장확대 추진 – '21.1분기 생활가전사업부(H&A) 매출액은 6.71조 원으로 월풀(약 5.97조원)을 앞서며 '21년 연간 매출액 기준 글로벌 1위 도전 – 올해 가전사업에 1조원 규모 투자예정, 프리미엄군인 오브제 컬렉션과 더불어 '펫케어', '홈술 가전'등 신가전 품목에 대한 시장 확대 추진 * LG전자 가전(H&A)부문 매출액(조원) : ('20.1Q) 5.42 → (2Q) 5.16 → (3Q) 6.16 → (4Q) 5.54 → ('20.1Q) 6.71 • (中 메이디)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필요 노동력 감소, '21.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한 14.24조원 달성(신화망, 5.13) – 가전시장의 프리미엄화 트렌드에 따라 산하 5개 고급 가전라인 브랜드 강화 추진
유가·원자재 환율영향	• 주요 원자재 – 가전제품 원자재인 석유화학 플라스틱 및 냉열강판 등의 원가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 가중 * 두바이유(달러/배럴, 월초 기준): ('20.5월) 26.9 → ('21.3월) 61.4 → (4월) 61.5 → (5월) 64.4 * 철광석(달러/톤, 월초 기준): ('20.5월) 84.3 → ('21.3월) 175.6 → (4월) 167.6 → (5월) 188.9
업종별 이슈	• 항공/해상 운임 급증 – 원자재 급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더불어 선박 부족에 따른 중견·중소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증가

3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 2021년 하반기 가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38억 달러 전망

- **(생산)** 주요 시장의 백신접종 확대 및 경기회복세 진입으로 가전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해외 공장 가동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국내 출하량은 기존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20년 주요브랜드 글로벌 시장점유율(후지키메라, 생산액 기준 비중 %) :
    [냉장고] (하이얼) 18.4, (미디어) 11.8, (삼성) 9.8, (LG) 9.1, (하이센스) 7.3
    [세탁기] (하이얼) 17.7, (미디어) 15.3, (삼성) 12.9, (LG) 11.7, (월풀) 8.4
    [TV] (삼성) 19.8, (LG) 13.7, (하이센스) 9.1, (TCL) 7.1, (폭스콘) 6.4
  *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2021년 최고 가전제품에 국내브랜드 제품 다수 선정(YTN, 1/13)
  * '21.1분기 미국 생활가전 시장점유율(%) : 삼성전자 20.9, 월풀 16.3, LG전자 15.8(트랙라인, 4/30)

국내 주요브랜드(LG, 삼성) 주요 가전 생산 현황

(단위 : 천 대)

품 목	2019년		2020년		2021년e	
	전체	국내	전체	국내	전체	국내
냉장고	21,300	2,600	20,820	3,020	21,100	-
세탁기	23,930	3,300	27,400	4,300	27,650	-
에어컨	12,850	3,900	12,050	2,800	-	-
TV(LCD, OLED 합)	66,100	200	76,850	1,000	80,800	-

자료 : 후지키메라(2021년)

- **(단가)** 원자재 및 물류비용 상승, 반도체 부품 품귀 현상 등 생산비용의 증가 영향으로 전반적인 제품 판매단가는 상승 전망

2021년 가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2020년		2021년					
			상반기e		하반기p		연간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가전	6,989	(0.7)	3,959	(33.7)	3,840	(-4.6)	7,799	(11.6)

주 : MTI 8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1년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Focus 발간 현황

IIT

iit No.	Trade Focus 보고서 명	작성자
No.1	중견기업, 코로나19 속 기술력으로 수출파고 넘다	정혜선, 최용민, 김낙훈
No.2	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동향 및 시사점	유서경
No.3	중국의 디지털 마케팅 유형과 우리기업의 활용전략	박소영
No.4	신성장 산업의 선두주자, 전기차의 수출 동향과 시사점	김경훈
No.5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혁신과 리쇼어링 - 선진 제조강국을 중심으로 -	강내영, 강성은, 도원빈
No.6	글로벌 구독경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심혜정
No.7	소재·부품 교역 동향 및 우리나라 경쟁력 현황	이유진, 도원빈
No.8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2019년 기준)	도원빈, 강성은
No.9	코로나19 이후 업종별 수출기업 생태계 변화 진단 - '19~'20 수출기업 개별 수출 통관실적 전수데이터 분석 -	홍지상
No.10	중국 소비시장 변화와 우리기업의 차별화 전략	박소영, 민지윤
No.11	2021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도원빈
No.12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현황 및 강화방안	이준명, 심혜정
No.13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정귀일
No.14	중국의 소비 페스티벌과 우리기업의 활용전략	박소영, 박승찬, 조병욱, 안현주
No.15	최근 해상운임 상승 원인과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방안	조성대
No.16	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와 시사점 : 푸드테크가 여는 새로운 미래	김보경
No.17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강내영, 강성은
No.18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 ① 희토류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김경훈, 박가현
No.19	2021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도원빈
No.20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홍지상, 김경훈, 정혜선, 강내영, 강성은, 도원빈 홍정완, 이유진